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최근 논의를 검토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실험적 수준에서 그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방향이나 논의구조를 조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단기간에 겪어 왔다. ‘국제화’와 더불어 ‘정보화’가 변화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보화는 확산속도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유선통신을 초월해 무선통신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이용자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있다.¹⁾ 정보화의 가속화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공적·사적 서비스 이용이나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적 삶을 누리기 위해 뉴미디어에 대한 단순한 접근능력

-
- 1) 한국정보문화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1998년 12.4%, 1999년 15.2%, 2000년 37.1%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지열 외, 2000). 무선인터넷의 경우 1999년 5월 처음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1년만인 2000년 6월에 이용자가 450만명을 넘었고, 거의 매달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IMT2000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면 무선인터넷 이용자는 양적으로 급신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ccess)을 넘어 정보활용능력(digital literacy)²⁾의 지속적인 보완과 습득을 요구받고 있다.

급속한 정보화 확산과정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룩한 ‘산업화’가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문제를 양산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화’ 또한 우리사회에 장미 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중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범죄 등에서 쉽게 발견된다. 정보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미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것들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를 띄고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의 경우 산업사회에서 개인적 부의 축적을 위해 흔히 있었던 사기나 협박과 그 맥을 같이 하지만, 사이버 중독이나 해킹과 같은 문제들은 산업사회에 있었던 여타의 중독이나 주거침입과는 그 성격이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주목을 받는 대부분의 정보화 역기능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이던 간에, 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던 간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발생하는 문제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정보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발생시킬 수는 없는, 요컨대 뉴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행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논의와 대책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

정보화에 따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격차’라고 볼 수 있다.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2) 활용능력(literacy)란 특정 시대에 중요한 지식이나 정보, 문화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기본능력을 의미하며, 정보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정보활용능력이 삶 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정보사회에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사회, 사회계층, 사회구성원이 당면하는 '정보격차'는 현존하는 제반 사회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암(癌)과 같은 존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결정론적 시각(technological determinism)³⁾에서 보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시·공간의 격차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간,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가 발생되기 시작했고 점차 그 강도와 폭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이나 국제기구가 국가간 또는 지역간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는 사실에서 쉽게 발견된다. 특히 정보격차가 산업사회에서 발생했던 국가간 빈부격차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⁴⁾

한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볼 때, 교육이나 경제수준이 낮은 도시영세

- 3)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은 "새로운 기술이 ... 사회 변화와 진보를 위한 조건들을 형성한다는 관점이다. 특히 진보란 발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현대세계를 창조했던 것이다." Raymond Williams(1990), "The Technology and the Society," in Raymond Williams (ed.), *Television: Technology & Cultural Form*, New York: Schocken Books, 1975; 김승현 편(1993: 21).
- 4) UNESCO, UNDP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격차 논의는 대부분 빈국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기능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2000년 1월 개최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찰스 슈밥 회장은 인터넷 격차 문제를 거론하였고, 'Global Digital Divide to the Global Digital Opportunity' 권고안을 G8 정상회담에 제출하여 'Digital Opportunity Taskforce'라는 조직체가 구성되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간의 의견교류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 APEC 고위관사회에서도 지식기반산업 발달에 따른 IT분야 육성 및 정보격차 해소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민이나 농어민, 정보기기 접근기회가 낮은 노인이나 주부, 장애인 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리된 이들에게 정보화는 '새로운 미래'가 아닌 '현존하는 소외의 심화'라는 이중적 소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정보와 지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미래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불평등의 핵심적인 원인도 현재의 '정보격차'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격차는 단순히 개인적 또는 계층적인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수요와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정보공급의 위축을 유발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정보화 속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교육·경제·문화·사회·정치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와 사회의 통합이나 정체성을 분열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정보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격차와 관련된 지속적인 조사가 수행되어 왔고 관련 정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⁵⁾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정보화정책은 정보화에

5) 미국 상무부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www.ntia.doc.gov)는 *Falling Through the Net*이라는 보고서를 1995년(*A Survey on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 1998년(*New Data on the Digital Divide*), 1999년(*Defining the Digital Divide*), 2000년(*Toward Digital Inclusion*)까지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도 1999년 12월 최초로 'digital divide summit'를 개최하였고, 2000년 1월 국정연설에서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부보조금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공약하는 한편, 4월에는 Market Tour의 일환으로 뉴멕시코 등 정보화 낙후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공공·민간부문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 외국과 국제기구의 정보격차해소 방안은 조정문(2000), "외국 및 국제기구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한국전산원, 정보격차 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지역간·계층간에 발생하는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정부나 사회적으로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음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⁶⁾

정보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은 대부분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농어촌 주민이나 장애인, 또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정보화 기반환경 구축과 정보이용능력 증대, 디지털컨텐츠와 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⁷⁾ 따라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화수준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나 정책은 매우 미진한 상태인데, 이는 정보격차 대상을 선정하는 변수를 연령층에 맞추거나 '접근'에 국한하는 경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보격차가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은 결국 현재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보격차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정보격차 현상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첫째 이유는, 청소년도 정보격차를 유발시키는 현재의 사회구조에서 성장하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이다. 청소년이라는 연령층이 현존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성장하여 미래사회를 구성하는 주된 행위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현재의 연령층만을 기준으로 삼은 분석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 현상을 보다 세밀히 예측하는데 한계를 지니며, 단기적인 분석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둘째 이유는, 정보격차의 내용이 단순히 뉴미디어나 정보서비스 접근 여부에 국한된 것이

집.을 참조할 것.

6) 2000년 12월 15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7) 우리나라 정보해소정책에 대해서는 신순식(2000), "우리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소개", 한국전산원, 정보격차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을 참조할 것.

아니라는 점에 있다. 정보격차의 초점을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문제에 국한시킨다면,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기술 발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전락될 것이다. 역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나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과 이용능력을 갖춘다면 정보격차는 더 이상 문제로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격차 내용은 '접근'의 문제에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활용능력이나 이용환경과 같은 사람 중심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활용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세대인 청소년계층이 중요한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의 청소년이 정보공간에서 제대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연구는 정보격차 범위와 내용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실험적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정보격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론적 성격을 지닌다.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구조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격차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으며 그 대책이나 정책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에 대한 분석틀을 제안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둘째,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의 실태를 실험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먼저 정보격차의 범위를 단순히 접근기회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정보이용능력이나 콘텐츠, 또는 서비스와 같은 정보공간 기반까지 확대함으로써 청소년계층이 지닌 정보격차의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청소년계층 내부에서 정보격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실험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향후 청소년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방안과 대안 모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청소년관련 정보격차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하나의 시도라는 성격을 지닌 이 연구의 내용은 첫째,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정보격차 개념과 관점에 대한 논의, 사회문제와 청소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의 범위와 분석방법과 틀을 설정한다. 여기서는 특히 정보격차의 범위를 포괄적인 범주로 확대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정보격차에 대해 검토하고,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에 대한 측정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정보격차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청소년관련 정보격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정보격차와 관련된 각종 지표의 특성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보불평등지수'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청소년 정보격차 실태를 실험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계층으로서 청소년과 다른 사회계층과의 격차를 검토하는 동시에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청소년관련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을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과정에서 취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의 수행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자료, 정보격차 측정지표 개발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물과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청소년관련 정보격차 실태를 실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정보화와 관련

된 각종 공식통계와 1999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자료의 재분석을 통해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실태를 분석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실질적인 세부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지만, 이 연구가 하나의 시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문헌연구조사나 사전조사로 대체하였다.

II. 청소년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

1. 정보사회와 정보격차
2. 정보격차의 측정
3. 청소년관련 정보격차
논의구조와 측정방법

II. 청소년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

1. 정보사회와 정보격차

1) 정보격차 분석틀과 관점

(1) 정보격차 개념과 분석틀

정보기술 발전과 확산에 따라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산과 정치적 권력의 원천으로 변모하는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차이를 의미하는 ‘정보격차’가 중요한 사회·경제·정치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격차의 문제는 이미 1990년대 초반, 세계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대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⁸⁾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미디어의 변화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8) 예컨대, 빌 클린터 미국 대통령은 1999년 11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된 서방 중도좌파 정치지도자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보격차”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향후 몇 년 내에 개도국들이 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밝힌 뒤 이 조치는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수입의 불평등을 극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1999. 11월 21일자).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규모의 정보격차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Schiller, H.(1990); 강현두 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등을 참조.

질적 변화가 사회계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비판이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정보격차에 대한 기본시각은 1970년대 사회·경제적 상위의 사회계층이 대중매체를 통해 지위가 낮은 계층보다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격차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식격차 가설’(knowledge gap)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최두진 외, 1996: 26).

1970년대에는 대중매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정보 자체와 뉴미디어 접근이 주된 변수로 간주되었는데, 초기에는 통신망이나 시스템과 같은 정보인프라에 초점을 둔 거시적 관점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점차 개인이나 사회계층간의 정보격차가 중요시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자(the information rich)와 못 가진 자(the information poor) 사이의, 또는 정보 소유자(Haves)와 소유하지 못한 자(Have Nots)⁹⁾ 사이의, 또는 인터넷 접근(access)이 가능한 사람과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¹⁰⁾ 사이의 분절(separation)”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보격차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보격차의 주체를 ‘개인차원’에 맞추는 한편 정보의 ‘보유’와 새로운 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정보격차를 의사소통구조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경우는(윤영민, 2000), 정보격차를 “정보 생산과 전송, 수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수준의 구조적 편향”으로 보고, 사회적 공평성 실현의 문제에 연결시킨다. 이 경우 정보생산단계에서 어떠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가, 정보전송단계에서는 정보가 누구에게 얼마나 접근이 가능한가, 정보의 수용단계에서는 누가 정보를 수용한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가가 정보

9) William Wresch(1996), *Disconnected: Haves and Have Nots in the Information Age*,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10)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Trade Association(2000), *State of the Internet 2000*.(<http://www.itta.com/internet2000.htm>, 검색일 : 2000. 10. 4.).

격차의 주된 분석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격차는 중요한 정책분야로도 부상하고 있는데,¹¹⁾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차원보다는 ‘사회적 계층’ 차원과 정보통신기기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격차와 관련된 논의에서 발견되는 핵심적인 분석 대상은 ‘주체’가 누구인가(who)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what)로 축약되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정보격차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후에 이를 통해 ‘주체’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¹²⁾

정보격차의 첫 번째 분석대상인 주체(who)의 분석수준은 특정 사회 계층이나 사회부문, 국가차원을 기준으로 가능하지만, 주로 개인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성별, 소득계층별, 직종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학력별 등으로 나누어 분석되고 있다.¹³⁾ 이 경우 전체 사회구성원의 정보화수준을 측

11)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7월 열린 제5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는 정보격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12)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을 ‘정보취약집단’으로 상정한 후, 이를 다시 정보화소외집단, 정보화욕구집단, 정보무관심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시도된 바 있다(오광석 외, 2000).

13) 성적(性的) 차이에 따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로는 윤영민(2000), “정보능력의 성차(性差)”, 사이버공간의 정치, pp. 217-248.; David Bolt & Ray Crawford(2000), “Gender Gap”, *Digital Divide: Computers and Our Children's Future*, New York: TV Books, pp. 73-94., 세대별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로는 황상민(2000), “온라인문화를 바라보는 청소년과 부모의

정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계층별 정보격차를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은 대부분의 정보격차 주제에 대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미 구조화된 특정 사회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정보격차 주제를 설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소득계층이나 거주지역 등의 기준에서는 청소년보다 가계, 특히 기성세대가 주된 분석대상이 된다.¹⁴⁾ 더구나 정보격차의 내용적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은 정보화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정보격차의 두 번째 분석 대상은, 내용(what)에 대한 것인데, 이는 크게 정보 또는 정보기기의 소유나 사용과 같은 정보화 '수준'에 대한 것과 정보화에 따른 '결과'에 대한 것으로 대별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실질적인 분석이나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자가 주된 분석대상이 된다. 전자의 경우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보나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 정보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며, 사실상 '정보'자체의 소유나 접근보다는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한 정보격차 요소로 간주된

시각차", 학부모정보감시단·경향닷컴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온라인문화 바로 이해하기.; 박명진(1996), "정보격차와 세대차이", 아산사회복지재단, 정보사회와 사회윤리심포지엄, pp. IV16-IV29.; 윤옥경(2000), "사이버시대의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제32호, pp. 55-76., 지역별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로는 배규환·임창규(1998), "한국 5대 도시의 정보화수준과 정보격차",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편,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세계사, pp. 509-528., 등이 있다. 서구에서는 인종에 따른 정보격차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대표하는 World Wide Web의 약자인 WWW를 'Wold White Web'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 14) 이러한 시각은 소외계층 정보격차 실태연구에 대한 연구에서 설정한 정보취약집단 조사대상 1005명 중 10대 청소년이 단 1명에 불과했다는 점에 서 잘 나타난다(오광석 외, 2000: 20).

다.15)

그러나 정보격차의 내용을 단순히 정보기기 소유나 접근, 사용과 같은 정보화 ‘수준’에 제한하는 것은 현실공간(real space)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만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정보화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공간에서 검증 가능한 대상을 주된 분석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을 정보격차의 주된 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의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는 다시 가상공간의 구조가 이용자의 부가가치 창출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정보격차 문제는 단순히 현실공간에서 발생하는 격차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의 정보화 기반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비로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보격차 개념을 “정보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간에 발생하는 현실공간의 정보화 수준 및 가상공간의 정보화 기반과 환경의 구조적 편차”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정보격차의 개념에 ‘가상공간의 기반과 환경’을 포함시킨 의도는 특정 사회 주체의 정보격차 원인이 개인적, 사회계층적 또는 사회부문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화에 의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에 있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포괄적 개념은 기존의 분석이 주로 ‘정보화 수준’에 초점을 맞춘 후에 이를 다시 ‘주체’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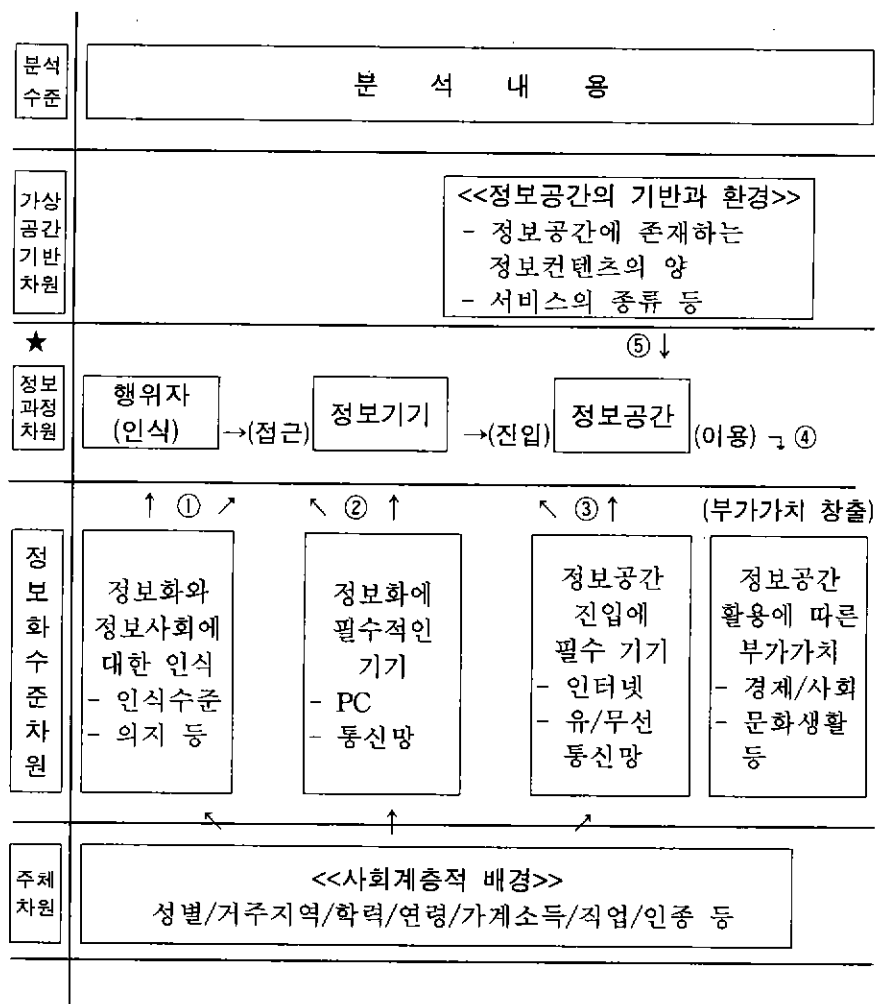
15) 이러한 분석은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컴퓨터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의미하는 ‘개인정보화지표’ 체계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다(최흥식 외, 1999). 또한 미국 상무부의 *Falling Through the Net*에서도 정보격차의 문제를 사실상 ‘접근기회의 격차’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U.S. NTIA, 1999).

제로 환원시킴으로써 정보격차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회적 주체’와 ‘정보화 수준과 가상공간의 기반’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포함된 분석들을 통해 정보격차가 어느정도인가(how), 왜 발생하는가(why)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정보격차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 밖에 정보격차가 개인이나 계층적 배경에 따른 정보화수준 뿐만 아니라 정보공간의 구조적 기반과 환경의 편차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들은 청소년의 정보격차를 문제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포괄적인 분석에 필요한 유의미한 변수를 제공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정보격차 개념에서 도출할 수 있는 분석들은 크게 주체와 내용분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주체가 누구이던 간에 내용은 그 주체의 ‘정보화과정’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그림 II-1].

첫째, 정보화 과정은 정보화와 정보사회에 대한 주체의 ‘인식’을 기반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인식차원’에서부터 격차가 발생된다(그림 II-1의 ①). 정보화 인식은 주체가 처해 있는 사회계층적 배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만, 개인 자신의 자발적 인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정보화 과정은,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과 정보공간 ‘진입’인데,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그림 II-1의 ②와 ③). 대부분의 기존 분석은 접근과 진입의 문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접근’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정보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PC나 통신망의 보유와 이용가능성, 보유한 컴퓨터 기종과 대수, 인터넷 접근 방식 등에서의 격차가 주된 분석대상이 된다.



[그림 II-1] 정보격차 분석틀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틀에서는 정보기기 접근과 별도로 정보공간의 '진입'이라는 변수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정보기술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변화와 확산에 의해 정보공간 진입에 필수적인 기재가 계속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은 마음만 먹으면 인터

넷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 마련되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가상 공간에 진입하는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무선인터넷은 아직 그 확산정도는 미약하지만 향후 그 속도는 매우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진입과정에 필요한 수단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 번째 과정은 진입에 성공한 후 가상공간 이용과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조사에서는 '정보이용' 또는 '사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컴퓨터 이용시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이용능력, PC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시간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아 그 격차를 분석하고 있다(그림 II-1의 ④). 그러나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바로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직결되지 않듯이, 이용과 관련된 분석대상에 정보윤리의식이나 이용에 따른 만족도, 활용목적과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이용'과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하는 새로운 분석내용은 가상공간의 기반과 환경이라는 변수이다(그림 II-1의⑤). 정보격차의 분석 수준을 정보화과정이라는 현실공간 범주를 넘어 사이버공간의 기반과 환경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은,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인데, 가상공간에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공간이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컨텐츠의 양이나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며, 향후 정보격차와 관련된 논의에서 주된 분석대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정보격차에 대한 관점

정보격차가 '정보소외'(digital alienation),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ity), '정보빈곤'(information poor)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정보격차에 대한 전망이나 해소방안에 있어 다양한 관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로운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이용의 확산과정에

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에 대한 시각은 정보격차의 발생 자체보다는 어떻게 변화되어갈 것인가라는 미래적 상황에 대한 예측을 기준으로 낙관론과 비관론, 중립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⁶⁾

낙관론의 경우 정보기술이 사회에 도입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회계층간 정보격차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곧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확산이론적 모델’(diffusion theory model)이 대표적인데, 모든 혁신의 확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S자형(S curve of diffusion)을 보이며 초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된다는 것이다. 뉴미디어의 확산도 초기에는 불평등이나 격차가 발생하지만, 점차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미디어 이용에 따른 효과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적극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하는 동시에 미디어 구입과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하락하여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정보격차가 줄어든다는 관점이다.

반면 비관론은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결국은 정보불평등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 사회전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본다. 지식격차이론이 대표적인데, 비록 뉴미디어가 대중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정보격차가 완화되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의 초기 구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불평등은 항상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위에서 언급된 두가지 관점이 기술결정론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면, ‘결정적 다수이론’(critical mass)은 정보화 성공이 정보화를 수용하는 ‘결정적인 다수’에 의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뉴미디어의 상호작용적 의사소통구조는 다수의 참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화의 성공여부는 결국 결정적인 다수가 확보되는가의 여부에 있고, 이를 위해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6) 정보격차에 대한 3가지 이론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최두진 외(1996: 29-36)을 참조하였음.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세가지 시각은 정보격차의 범위를 정보기기와 이용의 확산이라는 주요변수를 네트워크라는 물리적 연계망에 국한시킴으로서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의 문제로 제한하는 경향을 지닌다. 정보격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정보이용의 결과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인데, 기술적 대상에 대한 접근의 문제로 정보격차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접근이 바로 새로운 가치창출이라는 매우 제한적 가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접근의 문제와 더불어 이용에 따른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는 분석틀이 요구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것은, 정보확산이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복합적인 형태를 보일 수 있고 다양한 미디어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정보격차와 사회문제, 그리고 청소년

(1) 정보격차의 재생산성

낙관론의 입장에 서 있는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화가 사회구성원의 삶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낙관론 입장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정보격차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 발생원인이 행위자 자신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에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정보사회에서는 필수적이며, 정보유통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사회·경제의 양적·질적 변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예컨대, 1950년대 사람이 1980년대 생활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1980년대 사람이 1990년대 생활에, 1990년대 중반의 사람이 2000년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일 것이다. 이처럼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적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로부터 소외된 행위자는 정보 접근이나 이용능력의 저하와 정보를 활용하는 생활습관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다시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 등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삶 자체를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1970년대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적 생산과 소비의 기회에서의 불평등이었지만, 정보화에 따른 불평등은 또다시 정보의 생산과 소비 자체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정보격차는 단순히 정보의 접근과 활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빈부격차로부터 시작하여 교육과 문화생활로 확대되어 경제적 생활과 삶 자체의 불평등으로 확대되며, 이는 다시 정보격차 자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소년의 경우 이미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라기보다는 가정이나 지역적 환경에 의해 ‘정보격차를 재생산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정보격차 실태분석과 대안 모색과정에서 청소년계층이 소외되고 있음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강하게 한다. 요컨대, 청소년은 현존하는 정보격차와 더불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정보격차라는 이중적 정보격차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교육기회와 경제생활의 격차와 불평등

정보화가 원격교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장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지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모든 교육 대상자가 자유롭게 새로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정보화에 따른 효과는 거주지역이나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는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포함한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낙오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시경쟁 뿐만 아니라 정보화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 방식에도 적응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기존 입시경쟁에 따른 사회적 격차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이중적 불평등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지식정보와 문화를 흡수하는 기본능력인 정보활용능력(literacy)의 습득은 교육을 통해 가능한데,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정보활용능력의 습득과 개발의 격차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적 활동과 직업을 선택하는 능력의 차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IMF차관도입이후 경제 계층간 분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정보격차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그리고 경제적 생활의 불평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3) 문화생활과 사회참여 격차와 사회적 갈등

표준화된 생활방식을 유지하였던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나 능력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개성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문화생활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보격차는 다원주의와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의 문화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세대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는 개별적인 차원의 문화적 소외나 사회적 이탈행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정체성(identity)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사회에서의 문화생활은 단순한 소비활동이 아니라 생산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생활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정보격차에 의한 문화생활 격차는 일상적 삶 자체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삶의 불평등은 결국 사회내부의 갈등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더구나 뉴미디어가 지닌 의사소통구조 특성상 사회문제의 공론화가 손쉽게 구성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 자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소지가 많으며, 이는 결국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정보격차의 측정

1) 정보격차 관련지표

정보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은 정보화 수준과 방향, 또는 속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의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정보화 속도만큼이나 관련 지표도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주로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산업지표'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점차 정보인프라를 포함한 정보기기의 활용, 접근 등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는 '정보사회지표'로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정보사회 변동으로서 정보화'지표에 대한 논의(서이중, 1998)를 통해 '삶의 질에 관한 지표'를 정보화지표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정보격차와 관련된 지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1) 정보산업지표와 정보사회지표

초기 정보사회 변동에 대한 지표 개발과 측정은 주로 정보산업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가 주된 지표로 구성되었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국민 경제를 정보부문과 비정보부문으로 나누고 정보산업의 비중이 증가되는 추세를 측정하여 정보화의 정도를 간주하였으며, 고용의 측면에서는 정보노동자의 숫자가 전체 산업부문 취업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보산업지표는 양적 측정에만 치중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보화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부문의 변동과 그 구조적 측면을 밝힐 수 있는 정보사회지표가 제시되었다.

정보사회지표는 1960년대 정보화를 국가적 목표로 관리하려고 했던 일본 학자들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informatization)라는 개념도 이때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정보사회지표를 1990년대 중반이후 정보산업과 인프라구축을 포함한 ‘기반지표’와 정보교류와 이용, 이용자 서비스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응용지표’로 이분화하여 접근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정보설비지표와 이용지표를 기본으로 하고, 산업지표 대신에 정보화지원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사회지표 구성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 밖에 정보이용의 차원을 넘어 정보문화 활동과 그 변화를 측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정보화의 사회적 수용력과 견인력을 지표화한 정보문화지표가 대표적이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6).

정보사회지표는 정보산업 발달과 정보설비 확산, 이용이라는 사회 변동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와 기술중심적 지표였고, 정보화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지표항목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정보사회로의 변동을 바르게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표 개발과 이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정보사회 변동으로서의 정보화지표¹⁷⁾

정보사회 변동을 측정하는 정보화지표는 크게 정보이용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는 ‘정보활용지표’와 정보화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정보화지표’, 지식정보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생산지표’와 ‘지식생산지표’ 등으로 구

17) ‘정보사회 변동으로서의 정보화지표’에 대한 논의는 서이종(1998)을 참조하였음.

성되는데, 이중 ‘삶의 질’에 대한 정보화지표는 정보격차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정보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지표는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정보화 기반구축이나 확산이 바로 정보의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보활용이 자동적으로 이용자 삶의 질을 증대시키지는 않는다는 관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지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지표에는 정보불평등지표, 개인정보침해 지표, 부적용지표, 정보복지지표 등이 포함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보불평등지표의 구성을 정보접근 격차와 정보활용 격차로 구분하여, 전자는 정보기기 접근과 이용기회 격차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경제 계층별, 지역별, 성별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활용 격차는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실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의 격차를 의미한다.

2) 정보격차 측정방법

(1) 정보격차 측정 방안¹⁸⁾

정보화를 측정하는 각종 지표들은 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실태를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현상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보‘화’(化)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정보사회는 하나의 변화 가능성으로 간주될 수 있고, 정보화지표는 이러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까지 통일된 정보화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정보격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18) 정보격차와 불평등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최홍석 외(1999: 33-51을 참조)와 유지열 외(2000: 209-220)을 참조하였음.

체계나 측정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은 '격차'보다는 '불평등'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수행되었고 정책적 대상으로 격차라는 개념보다 불평등 개념이 더 높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표의 구성이나 측정방식이 주로 개인의 정보화수준을 측정한 후 이를 전체사회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정보격차나 불평등 측정 대상으로 개별국민의 정보화 중요성에 대한 인식, 컴퓨터나 통신에 대한 접근성, 정보시스템의 활용 수준을 의미하는 개인정보화지표(PII: Personalized Information Indices)로 상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정보불평등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 개인정보화지표 구성체제와 측정방법

개인정보화지표는 국민전체 정보화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정보불평등계수'(Information Inequality Ratio)뿐만 아니라 정보화 수준별 계층 구분, 직업이나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집단간 정보불평등을 측정하는 기본 도구로 사용된다. 이미 개발된 대부분의 개인정보화지표는 인식지수, 접근지수, 사용지수, 역량지수로 구성되는데, 인식지수는 국민 개인이 갖는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접근지수는 개인의 정보시스템과 통신시스템에 대한 접근의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지수는 개인이 정보시스템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때, 역량지수는 개인의 정보화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준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러한 지수들은 대체성이 존재하지 않고 시간적인 순차성과 인과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개인정보화 지표는 이러한 지수의 합으로 계산된다.

또한 개인정보화지표의 측정은 여러 항목에 대한 평가가치의 단순 합산이나 단순 평균을 이용하지 않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구하

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홍식 외(1999)의 연구의 경우, 가중치 산출을 위해 20여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설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집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이를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특히 각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의 합이 1이 되도록 부여하였으며, 그 구성과 가중치는 <표II-1>과 같다.

<표 II-1> 개인정보화지표 구성과 가중치

개인 정보화지표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 인식지수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수준(1.0)		
정보 접근지수	컴퓨터 접근성(0.5)		가정(0.38) 학교 및 직장(0.49) PC방이나 공공시설(0.13)
	통신 접근성(0.5)		중고속(0.65) 저속(0.35)
정보사용 (이용)지수	사용능력(0.46)		응용프로그램(0.51) 통신프로그램(0.49)
	사용시간(0.54)		주당 응용프로그램 사용시간(0.53) 주당 통신프로그램 사용시간(0.47)
정보화 역량지수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0.38)		
	정보시스템 접근성 (0.31)	컴퓨터 접근성(0.5)	가정(0.38) 학교 및 직장(0.49) PC방이나 공공시설(0.13)
		통신 접근성(0.5)	중고속(0.65) 저속(0.35)
	사용능력(0.31)		응용프로그램(0.51) 통신프로그램(0.49)

출처 : 최홍식 외(1998: 57)

(3) 정보격차의 측정

정보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초기의 연구는 대부분 사회계층을 미리 구분하고 각 사회계층별 컴퓨터 보유여부나 PC통신 또는 인터넷 이용 여부 등과 같은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계층을 기준으로 삼거나 정보화수준을 측정하는 개별항목에 대한 조사는 전체 국민이나 조사대상의 정보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객관적인 측정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최근에는 정보격차의 중요한 배경변인인 성이나 연령, 직업 등에 따른 사회계층별 정보격차 실태분석과 동시에 조사대상자 전체의 정보불평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불평등지수’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개인정보화지표를 기초로 정보격차 또는 불평등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정보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은 사회집단간 정보격차의 측정, 그리고 정보화계층별 격차 분석이 가능하다.

정보격차 또는 불평등지수는 정보격차 실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정보불평등지수는 사회집단간에 디지털정보의 접근과 활용 정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를 대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한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격차를 하나의 지수로 표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성,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등을 위한 공통의 기준을 제공하는 표준성, 정보격차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유지열 외, 2000: 210).

정보불평등지수는 개인정보화지표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보인식지수, 정보접근지수, 정보이용지수, 정보역량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산방식에 있어서도 각 지수별 해당 문항 응답 값을 표준화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각 지수값을 산출하고 있다. 유지열 외(2000)의 경우, 정보불평등지수

작성시 1순위를 차지하는 집단을 비교 기준집단으로 선정하여 기준집단의 지수값이 100이 되도록 하여 평가하고 있다<표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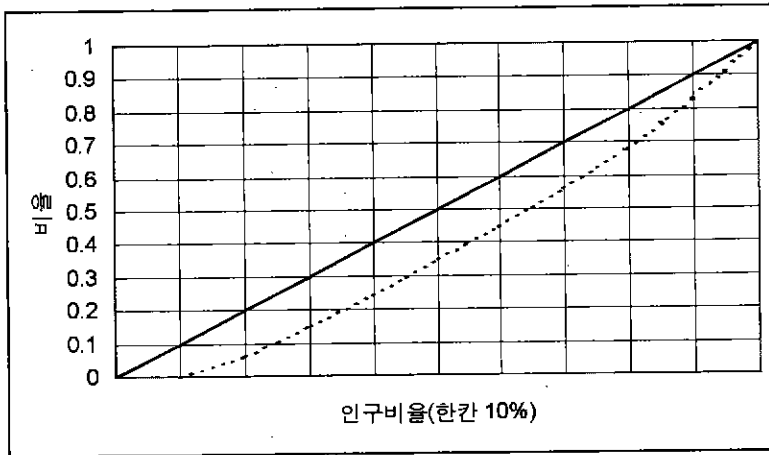
<표 II-2> 정보불평등지수 구성체계

4대 부문지표	11대 변수군 (총 23개 변수)
정보 인식지수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수준(2개 변수)
	정품소프트웨어 구입경험 여부(1개 변수)
	온라인서비스 이용 희망정도(9개 변수)
정보 접근지수	이동전화 이용대수(1개 변수)
	컴퓨터 가정보유 대수(1개 변수)
	고속 및 저속 통신에의 접근 여부(1개 변수)
정보 역량지수	컴퓨터교육 이수경험 유무(1개 변수)
	컴퓨터 이용능력 정도(4개 변수)
정보 이용지수	컴퓨터 이용시간(1개 변수)
	컴퓨터통신 이용시간(1개 변수)
	인터넷 이용시간(1개 변수)

출처 : 유지열 외(2000: 211)

또한 조사대상 전체의 정보격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니계수 계산법을 이용한 '정보불평등계수'를 추정하는데,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된다[그림 II-2]. 지니계수의 횡축(x축)은 인구의 누적백분율을, 종축(y축)은 소득의 저액층부터 누적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결과로 로렌즈곡선이 그려지며, 그 선이 대각선(균등선)을 이룰 경우 균등분배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불평등 정도는 균등선과 로렌즈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a)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균등선(45도선)과 횡축(x축), 종축(y축)으로 둘러싸여진 삼각형의 면적을 (b)라 할 때, a/b가 지니계수값이 되며, 그 값은 0과 1 사이의 값

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2] 지니계수를 활용한 정보불평등계수

일반적으로 경제분야에서는 지니계수가 0.3을 넘으면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하며,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상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보불평등계수에서도 대부분 0.3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그 이상이면 불평등한 것으로 측정하고 있다.

정보격차를 측정하는 두 번째 방식은, 개인별 지수를 이용하여 소득별, 지역별, 직업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 사회계층 배경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성한 후 각 집단의 개인정보화지수의 평균을 구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유지열 외(2000)의 경우, 각 사회계층별 배경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정보화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의 지수를 100으로 환산하여 다른 집단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예컨대, 성별 정보격차의 측정에서는 남자를, 연령대에 따른 정보격차 측정에서는 10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보격차의 세 번째 분석방법은 정보화계층별 불평등 분석인데, 이 분석방법은 개인별정보화지표를 근거로 정보문맹층,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등으로 구분하고 각 정보화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정보화지표

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보화 계층분류를 위해서는 특정지수의 선택과 분류기준이 되는 상, 하한선을 정해야 하는데, 최홍식 외(1999)의 연구에서는 사용지수를 정보화계층분류 기준지수로 사용하였고, 0.7과 0.3을 기준선으로 사용하였다.

3. 청소년관련 정보격차 논의구조와 측정방법

1) 청소년관련 정보격차 논의방안

청소년이라는 특정 연령층에 대한 정보격차의 범주는 크게 특정 연령층으로서 청소년과 다른 사회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격차에 대한 것과 동일한 연령층인 청소년계층 내부에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격차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표 II-3>.

<표 II-3> 청소년관련 정보격차 논의범주와 분석방법

청소년관련 정보격차의 범주	분석수준	분석내용과 방법
1) 청소년과 다른 사회계층과 정보격차	- 정보화수준 - 가상공간의 기반과 환경	- 개인정보화지표 - 정보불평등계수 - 가상공간 정보컨텐츠와 서비스
2)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 주체차원 - 정보화수준 - 사회계층 배경에 따른 정보화 수준 - 정보화계층 배경에 따른 정보화 수준	- 개인정보화지표 - 정보불평등계수

2) 청소년과 다른 사회계층간 정보격차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집단간에 발생하는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직업이나 소득수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부모세대와 청소년세대간의 정보화수준에 대한 분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가족이라는 사회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 분석을 위해서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청소년계층과 다른 연령대의 정보화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보화 과정에서 청소년이 처해 있는 객관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된 정보격차 분석틀을 토대로 할 때, 청소년과 다른 연령층의 정보격차 분석수준은 주체의 문제를 제외한, 정보화 과정과 가상공간의 기반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의 정보격차 측정은 이미 주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내용은 먼저, 정보화에 대한 인식 격차를 시작으로 정보기기 접근과 정보공간 진입, 정보활용능력에서의 격차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분석방법은 주로 개인정보화지표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초 분석자료 또한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상공간의 기반과 환경의 격차에 대한 분석내용은 정보공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양과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 많은 정보 중에서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보의 양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3)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정보격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원인이 사회구조적 차원에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동일 계층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기반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또한 청소년 개개인의 개인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배경이나 정보화수준에 따른 정보격차 실태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현존하는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는 미래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의 실태를 미리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분석수준은 주체의 문제와 정보화과정의 맥락으로 구분하여 가능하다. 먼저 주체의 문제의 경우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기준으로 집단화하는 방법이 채택될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정보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규모별, 가정의 경제수준별, 학업능력별 등을 주된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화과정에 대한 분석방법은 먼저 청소년계층에 적합한 특화된 개인정보화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계층의 정보불평등계수와 사회계층적 배경과 정보화계층별 정보화 수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계층의 개인정보화지표는 기존의 정보화지표를 도입하되, 청소년이라는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과정과 더불어 각 항목별 가중치 부여가 필수적이다<표 III-15 참조>. 둘째, 청소년의 개인정보화지표를 토대로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불평등계수를 파악하는데, 세부적인 방법 등은 기존 연구방식을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

년의 사회적 배경별 정보격차에 대한 분석은 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거주 지역별, 소득별, 학업능력별로 선정하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넷째, 정보화 수준별은 개인정보화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되, 청소년의 경우 전체적인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청소년계층에 부합되는 특화된 기준선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Ⅲ. 청소년관련 정보격차 실태분석

1. 청소년과 다른 사회계층간
정보격차 실태
2.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실태

III. 청소년관련 정보격차 실태 분석

1. 청소년과 다른 사회계층간 정보격차 실태

1) 조사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다른 사회계층간 정보격차 분석을 크게 연령 대별 정보화 수준에 대한 것과 가상공간의 기반이나 환경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표 III-1>. 정보화 수준의 분석대상은 개인 정보화지표를 구성하는 인식지수, 접근지수, 이용지수와 관련된 항목 중에서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선택하였으며, 구조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이용시간이나 활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항 등은 제외시켰다. 분석방법은 2000년 정보문화센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10대 청소년과 국민전체 평균 경향을 비교하였다.

사이버공간의 기반과 환경에 대한 분석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성격과 서비스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분석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양한 서비스나 이용 행태 등에 대한 조사는 향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III-1> 청소년과 다른 사회계층간 정보격차 분석

분 석 수 준	분 석 내 용	분 석 방 법
1) 정보화 수준	- 정보인식지수관련문항 - 정보접근지수관련문항 - 정보이용지수관련문항	- 2000년 전체 국민 설문 조사결과 (한국정보문화센터)
2) 가상공간의 기반과 환경	- 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 현황 - 청소년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	- 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 수 측정 - 청소년기관 홈페이지 운영 현황 조사

2) 정보화 수준격차

(1) 연령대별 정보불평등지수

2000년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정보불평등지수 조사는 인식지수, 접근지수, 역량지수, 이용지수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연령대별 불평등현황 제시의 기준을 10대로 삼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10대 청소년의 정보화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정보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의 정보지수를 기준(100)으로 할 때 20대는 93.4, 30대는 65.7, 40대는 52.1, 50대 이상은 30.9로 조사되어, 40대 이상은 10대 청소년의 정보화수준에 비해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 특히, 연령별로 정보인식과 접근지수보다는 역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정보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식 및 접근지수의 경우 50.7, 54.1의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역량과 이용지수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연령별 정보불평등 현황

연령대	인식지수	접근지수	역량지수	이용지수	불평등지수
10 대	100	100	100	100	100
20 대	95.7	101.5	83.9	110.5	93.4
30 대	81.4	81.9	45.6	46.8	65.7
40 대	71	77.8	25.1	27.5	52.1
50 대이상	49.3	47.4	8.7	8.6	30.9
격 차*	50.7	54.1	91.3	101.8	69.1

* : 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를 의미

연대별 정보격차는 직업별 차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대학생을 기준(100)으로 할 때 정보격차가 심한 직업집단은 농/어업 종사자, 주부, 자영업자, 블루컬러 등이고, 화이트컬러와 10대 중고생들만이 정보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보화와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격차

정보화와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향후 정보화에 대한 준비나 대응방식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서는 정보화와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2000년 정보문화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 정보사회 인식도의 비교에서 10대 청소년의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보화 인지도의 경우 국민평균 4.29보다 높은 4.56으로 나타났다. 정보사회 인지도 또한 국민평균 4.26보다 높은 4.47로 조사되어 전체 국민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표 III-3>. 국민전체의 평균은 10대 청소년과 20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간의 격차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II-3> 정보화와 정보사회 인지도 비교

단위: 빈도 (%)

		전혀 알지 못함	모름	잘모름	들어본 정도	조금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매우 자세히 알	전체	평균
정보화 인지도	10대	5 (1.1)	17 (3.7)	55 (12.0)	125 (27.4)	159 (34.8)	86 (18.8)	10 (2.2)	457	4.56
	전체	81 (2.7)	206 (6.9)	448 (14.9)	859 (28.6)	902 (30.1)	444 (14.8)	60 (2.0)	3000	4.29
정보사회 인지도	10대	6 (1.3)	18 (3.9)	71 (15.5)	126 (27.6)	139 (30.4)	88 (19.3)	9 (2.0)	457	4.47
	전체	82 (2.7)	216 (7.2)	456 (15.2)	889 (29.6)	855 (28.5)	434 (14.5)	68 (2.3)	3000	4.26

출처: 유지열 외 (2000: 223, 224)

(3) 정보기기 접근과 가상공간 진입의 격차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과 가상공간 진입과 관련된 격차는 가정의 컴퓨터, PC통신, 인터넷 보유율과 자신 소유의 컴퓨터, PC통신, 인터넷 이용여부와 이용시간에 대한 조사항목을 통해 살펴보았다.

가정의 컴퓨터 보유율을 보면, 10대의 경우 77.5%가 집안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평균 66.0%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의 컴퓨터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표 III-4>.

<표 III-4> 가정의 컴퓨터 보유여부 비교

단위: 빈도 (%)

	보유함	미보유	전체
10대	354(77.5)	103(22.5)	457
전체	1979(66.0)	1021(34.0)	3000

출처: 유지열 외 (2000: 228)

개인 자신의 컴퓨터 이용여부를 보면, 10대의 경우 10명 중 9명 (91.7%)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평균 50.4%보다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컴퓨터 이용능력의 격차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청소년 부모의 경우 대부분 30대(46.1%)와 40대(31.6%)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족 구성원간 격차는 향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표 III-5>.

<표 III-5> 컴퓨터 이용여부 비교

단위: 빈도 (%)

	이용함	이용안함	전체
10대	419(91.7)	38(8.3)	457
전체	1513(50.4)	1487(49.6)	3000

출처: 유지열 외 (2000: 243)

PC통신의 경우 가정의 이용률을 보면, 10대의 경우 56.5%가 집에서 컴퓨터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은 39.9%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III-6>.

<표 III-6> 가정의 PC통신 이용여부 비교

단위: 빈도 (%)

	이용함	이용안함	전체
10대	258(56.5)	199(43.5)	457
전체	1198(39.9)	1802(60.1)	3000

출처: 유지열 외 (2000: 229)

가정의 PC통신 이용률과 달리, 개인 자신의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60.4%가 현재 PC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평균 30.9%의 2배에 달했다<표 III-7>.

<표 III-7> PC통신 이용여부 비교

단위: 빈도 (%)

	이용함	이용안함	전체
10대	276(60.4)	181(39.6)	457
전체	928(30.9)	2072(69.1)	3000

출처: 유지열 외 (2000: 295)

그러나 PC통신 이용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10대 청소년의 PC통신 이용시간은 국민평균 시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더 짧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높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III-8>.

<표 III-8> 하루 평균 가정내 PC통신 이용시간 비교

단위: 빈도 (%)

	이용시간	표준편차	전체
10대	57.80	41.9788	200
전체	58.16	43.0176	3000

출처: 유지열 외 (2000: 298)

PC통신과 달리 가정의 인터넷 이용률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10대 청소년을 가족으로 둔 가정의 경우 58%가 인터넷을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었으며, 국민평균은 39.2%로 조사되어, 청소년을 가족으로 둔 가정의 인터넷 이용률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9>.

개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가정의 인터넷 이용률과 차이를 보이는데, 10대의 경우 73.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계층의 PC통신 이용률보다 더 높게 조사되었지만, 국민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37.1%로 조사되어 PC통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II-10>.

<표 III-9> 가정의 인터넷 이용여부 비교

단위: 빈도 (%)

	이용함	이용안함	전체
10대	265(58.0)	192(42.0)	457
전체	1176(39.2)	1824(60.8)	3000

출처: 유지열 외 (2000: 230)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국민평균 이용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속도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이다.

<표 III-10> 인터넷 이용여부 비교

단위: 빈도 (%)

	이용함	이용안함	전체
10대	335(73.3)	122(26.7)	457
전체	1112(37.1)	1888(62.9)	3000

출처: 유지열 외 (2000: 318)

반면 인터넷 이용시간은 PC통신 이용시간과 유사하게 10대 청소년 이용시간이 국민평균 시간에 비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1>.

<표 III-11> 하루 평균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 비교

단위: 빈도 (%)

	이용시간	표준편차	전체
10대	74.36	64.3541	335
전체	99.45	98.2610	3000

출처: 유지열 외 (2000: 332)

이러한 결과를 보면, 10대 청소년의 경우 전체 국민에 비해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이나 가상공간 진입에 필요한 객관적인 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능력은 매우 높지만, 실제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시간은 국민에 비해 짧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4) 정보화역량 격차

정보화역량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과 문서작성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먼저, 컴퓨터 관련교육 이수 여부의 경우 10대 청소년의 10명 중 7명(75.1%)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평균 38.4%의 2배에 달했다<표 III-12>.

<표 III-12> 컴퓨터 관련 교육경험 비교

단위: 빈도 (%)

	있다	없다	전체
10대	343(75.1)	114(24.9)	457
전체	1151(38.4)	1849(61.6)	3000

출처: 유지열 외 (2000: 357)

문서 작성방법에 있어서도 10대 청소년의 컴퓨터나 워드프로세서 이용율이 국민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3>.

<표 III-13> 문서작성 방법 비교

단위: 빈도 (%)

	종이에 손으로 씀	타자기 이용	워드프로 세서	컴퓨터 이용	작성안함	전체
10 대	200(43.8)	9(2.0)	26(5.7)	221(48.4)	1(0.2)	457
전 체	1950(65.0)	32(1.1)	98(3.3)	898(29.9)	22(0.7)	3000

출처: 유지열 외 (2000: 369)

이러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정보화수준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여기서 제시된 비교대상이

국민평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보화 인식이나 이용, 역량의 측면에서 모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이버공간에 진입하여 이용하는 절대시간은 일반국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상공간 기반과 환경격차

(1) 가상공간의 기반과 환경의 분석

사이버공간의 기반과 환경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이용자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와 그 정보를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사는 관련홈페이지의 개수 측정을 따른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우리나라 전체 홈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며, 대략적인 추산치만 예측이 가능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및 대표적인 홈페이지 검색기 서비스 업체인 야후코리아(kr.yahoo.com), 심마니(simmany.chollian.net), 알타비스타(www.altavista.com)에 문의한 결과, 2000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홈페이지 총 수는 약 20만개에서 30만개로 정도로 추정되었다.

(2) 청소년을 위한 가상공간 기반과 환경

청소년을 위한 가상공간의 기반과 환경은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수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던간에 가상공간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가상공간, 즉 인터넷에 담겨있는 정보의 엄청난 양이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청

소년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비해 '청소년 자신을 위한 정보'를 찾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그 양 또한 너무나 적다는 사실이다. 엄청난 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겨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 공간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의 양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정보'의 양과 서비스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체 홈페이지의 0.3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표 II-14>,¹⁹⁾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양이 적은 것은 가상공간이 공공성 논리보다는 시장논리가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한글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차지 비율이 약 0.07%²⁰⁾이라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주장할

19)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수를 추정한 방식은, ① 2000년 3월 20일-29일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서비스 업체인 '야후코리아', '삼마니', '알타비스타'를 통해 '청소년'이라는 주제를 입력하여 1차 검색한 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기관명, 주요 서비스 내용 확인(검색기당 평균 511.7개 홈페이지 검색) → ② 상담, 보호기관 등 18개 영역별로 서비스내용 분포도 분석 ③ 검색기 통계담당자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 중 각 검색기에 등록되어 있는 비율을 약 70%정도 추정하여 누락 부문 30%를 추가로 계산 → ④ 1차 검색된 '청소년' 검색어 조사결과 홈페이지 수에 각 검색기에 누락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20%을 추가로 계산 → ⑤ 추정 홈페이지 수를 평균홈페이지 수(511.7개) x 130% x 120% = 798.2개로 추산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홈페이지 수를 25만개로 추정시 전체의 0.32%에 해당한다.

20)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수는 정보제공지역에 상관없이 한글로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9년 현재 한글로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수는 150-200개로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25만개)의 0.07%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전세계 음란사이트는 115,000

수도 있다.

<표 III-14> 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 수

단위: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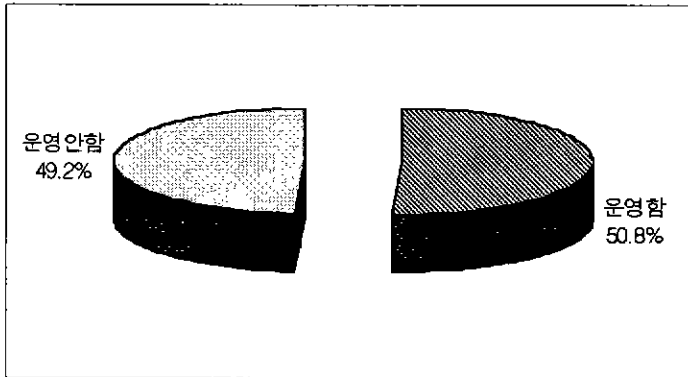
구 분	추정 홈페이지 수	평균 홈페이지 수	심마니	야후 코리아	알타 비스타	비 고
총 계	798 (100.0)	511.67 (100.0)	560 (100.0)	406 (100.0)	569 (100.0)	
상담·성교육 등 관련정보	88 (11.1)	56.67 (11.1)	52 (9.3)	46 (11.3)	72 (12.7)	상담실, 성교육 프로그램, 정신과 안내 등
수련시설 정보	69 (8.6)	44.0 (8.6)	53 (9.5)	48 (11.9)	31 (5.4)	생활권, 자연권 수련시설 관련정보
봉사활동 정보	21 (2.6)	13.3 (2.6)	10 (1.8)	13 (3.2)	17 (3.0)	자원봉사센터, 프로 그램 정보
인성함양 프로그램 정보	10 (1.3)	6.7 (1.3)	11 (2.0)	2 (0.5)	7 (1.2)	인성교육 프로그램 정보
청소년 신문, 방송, 잡지 등 정보	76 (9.6)	49.0 (9.6)	55 (9.7)	33 (8.1)	59 (10.4)	인터넷 방송국, 신문, 웹진 등
종교지원활동	58 (7.3)	37.3 (7.3)	46 (8.2)	28 (6.9)	38 (6.7)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청소년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활동	23 (2.9)	15.0 (2.9)	21 (3.8)	2 (0.5)	22 (3.8)	특정 지역중심의 정보제공
청소년복지, 보호 지원프로그램	104 (13.0)	66.7 (13.0)	60 (10.7)	79 (19.5)	61 (10.7)	야학, 유해환경감시 단, 쉼터,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청소년 연구 및 기초통계 정보	23 (2.9)	14.7 (2.9)	14 (2.5)	14 (3.4)	16 (2.9)	청소년관련연구 기관, 정책부서 등의 자료

여개 정도로 추정된다(국민일보, 2000년 6월 13일).

구 분	추정 홈페이지 수	평균 홈페이지 수	심마니	야후 코리아	알타 비스타	비 고
문화활동지원 프로그램 (문학/음악등)	95 (11.7)	60.0 (11.7)	71 (12.7)	39 (9.6)	70 (12.3)	독서, 영화, 음악, 축제 등에 대한 정보
진로 및 진학 정보제공	8 (1.0)	5.3 (1.0)	7 (1.3)	5 (1.2)	4 (0.7)	청소년진로, 취업 등에 대한 정보
청소년단체활 동 정보제공	56 (7.0)	36.0 (7.0)	44 (7.8)	35 (8.7)	29 (5.1)	청소년단체 정보
국내외 교류관련 정보제공	15 (1.9)	9.7 (1.9)	10 (1.8)	1 (0.2)	18 (3.2)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 정보
학교 교육 관련 정보제공	30 (3.7)	19.0 (3.7)	28 (5.0)	8 (2.0)	21 (3.7)	학교 교육관련 자료
부모활동지원 /교육프로	12 (1.6)	8.0 (1.6)	6 (1.1)	7 (1.7)	11 (1.9)	부모의 청소년지도 교육관련 프로그램
정보마인드 확산 및 과학정보제공	29 (3.6)	18.3 (3.6)	22 (3.8)	11 (2.7)	22 (3.8)	청소년의 정보화 능력배양 및 과학 정보
보건, 스포츠, 레저 정보	39 (4.9)	25.0 (4.9)	15 (2.7)	24 (5.9)	36 (6.3)	보건, 스포츠활동 등에 대한 정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정보	42 (5.3)	27.0 (5.3)	35 (6.3)	11 (2.7)	35 (6.2)	청소년 자신들의 동아리활동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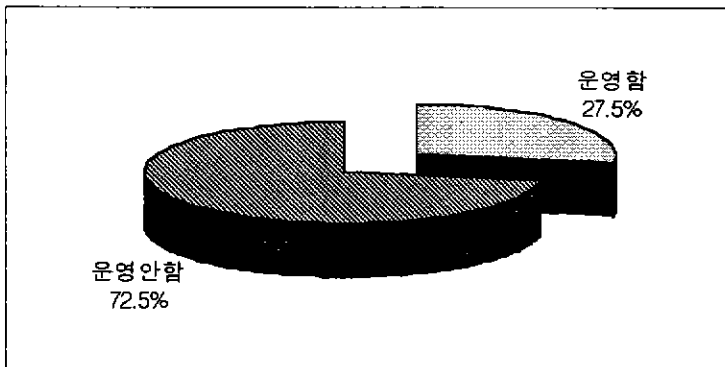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50%이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공간의 기반과 환경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쉽게 발견된다. 청소년관련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청

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을 들 수 있는데, 청소년단체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50.8%에 불과하였다[그림 III-1](황진구 외 2000: 78).



[그림 III-1] 청소년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율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10개 기관 중 3개 정도의 기관(27.5%)만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홈페이지의 운영내용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II-2].



[그림 III-2] 수련시설 홈페이지 운영율

따라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가상공간은 청소년이 건전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이용자가 매우 적은 양의 바람직한 정보를 찾아 헤매야만 하는 '정보의 늪지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취약한 기반환경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정보 내용(contents)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인터넷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보다는 일차적인 욕구에 맞는 정보가 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²¹⁾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공간의 기반과 환경이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실태

1) 조사내용과 방법

(1) 청소년 개인정보화지표 구성과 측정문항

① 청소년 개인정보화지표의 구성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실태 분석은 먼저 개별 청소년의 개인정보화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항목을 구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조사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99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정보화 실태와 새로운 정책의 방향' 연구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정보화지표의 세부항목과 그 내용은 <표 III-15>와 같다.

21) 청소년을 주된 소비자로 삼는 홈페이지의 광고에서는 광고업계에서 금기되어 온 속어나 비어를 선전문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자극적인 표현과 그림을 담은 광고도 등장하고 있다.

<표 III-15> 청소년 개인정보화지표 구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정보 인식지수	정보화와 정보사회 인지도(0.5)		- 정보화 정보사회 인지도 (1개 변수:0.8) - Y2K 인지도(1개 변수: 0.2)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여부(0.2)		- 교육용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경험 (7개 변수)
	정보화의 중요성 인식(0.3)		-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화 인지도(10개 변수)
정보 접근지수	컴퓨터 접근성(0.5)		- 가정의 컴퓨터 보유여부 (1개 변수: 0.4) - 청소년 자신의 컴퓨터 보유 (1개 변수: 0.6)
	통신 접근성(0.5)		- 가정의 PC통신, 인터넷 이용 (2개 변수: 0.4) - 청소년 자신의 PC통신, 인터넷 이용 (2개 변수: 0.6)
정보 이용지수	사용능력(0.5)		- 컴퓨터 관련교육(1개 변수: 0.4) - 키보드 조작능력(1개 변수: 0.6)
	사용환경(0.5)		- 부모의 PC통신 이용능력과 자녀의 이 용에 대한 태도 (2개 변수: 0.4) -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과 자녀의 이 용에 대한 태도(2개 변수 :0.6)
정보화 역량지수	정보화와 정보사회 인지도(0.3)		
	정보 시스템 접근성 (0.3)	컴퓨터 접근지수 (0.5)	- 가정의 컴퓨터 보유여부 (1개 변수: 0.4) - 청소년 자신의 컴퓨터 보유 (1개 변수: 0.6)
		통신 접근성 (0.5)	- 가정의 PC통신, 인터넷 이용 (2개 변수: 0.3) - 청소년 자신의 PC통신, 인터넷 이용 (2개 변수: 0.5) - PC통신,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1개 변수 : 0.2)
	사용능력(0.4)		- 컴퓨터 관련교육(0.4) - 키보드 조작능력(0.6)

② 정보인식지수 측정

청소년의 정보인식지수는 크게 정보화와 정보사회 인지도, 정품소프트웨어 구매여부, 정보화 중요성 인식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부분별 세부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하여 인식지수로 사용하였으며, 세부 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청소년의 정보사회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측정을 위한 문항은 아래의 정보화나 정보사회에 대한 인지도와 Y2K 인지도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 여러분은 '정보화'나 '정보사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들어만 본 정도다	잘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 여러분은 'Y2K'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들어만 본 정도다	잘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둘째, 정보화에 필요한 윤리적 측면에 대한 문항은 정품소프트웨어의 구매경험에 대한 문항을 선택하였는데, 제시된 7개의 소프트웨어 중 구매경험이 있는 개수를 계산하였다.

- 여러분이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해당되는 것

들을 모두 선택하여 V표시 해 주십시오.

항 목	V 표시	항 목	V 표시
1) 학습용, 교육용 소프트웨어		5) 프로그래밍 언어	
2) 게임/오락		6) 통신 및 인터넷 관련 프로그램	
3) O/S(도스, 윈도우즈), 유틸리티		7) 그래픽 디자인, 음악, 멀티미디어 등	
4) 워드프로세서 (한글, MS워드 등)			

셋째,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문항은 정보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10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호응도를 계산하였다.

- 다음은 정보화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입니다. 좌측의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	----	-----	-----------

- 1) 학교나 직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학교 수업이나 근무가 가능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의견이나 요청사항을 전달하기 쉬워질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 일하는 시간이 줄고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 새로운 청소년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국민의 정치참여가 높아져 민

- 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9) 정보화에 따라 선진국이 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전반적인 삶의 즐거움이 늘어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정보접근지수 측정

정보접근지수는 컴퓨터 접근과 통신 접근성으로 구분하고, 각각 가정과 청소년 자신의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각 조사 문항은 가정의 이용여부 항목과 청소년자신의 이용여부 조사항목을 사용하였다.

- 다음 중 여러분의 가정에서 갖고 계시거나 이용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골라 옆 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 목	V표시	항 목	V표시
4) 컴퓨터		12) 인터넷	
6) PC통신		이하 기타 항목 생략	

- 다음 중 청소년 여러분이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골라 옆 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 목	V표시	항 목	V표시
1) 컴퓨터		3) 인터넷	
2) PC통신		이하 기타 항목 생략	

③ 정보이용지수 측정

정보이용지수는 개인의 이용능력과 이용에 필요한 환경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첫 번째 사용능력은 컴퓨터관련 교육경험 유무, 키보드 조작 능력 조사항목을 선택하였다.

- 여러분은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_____ ② 없다. _____

- 컴퓨터의 키보드를 조작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키보드의 키를 찾는 것조차도 힘들다. _____

② 키보드의 키를 보면서 친다. _____

③ 키보드를 보지 않고 칠 수 있다. _____

둘째, 정보기기 이용환경에 대한 문항은 부모의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능력과 자녀의 이용에 대한 태도 항목을 선택하였다.

- 여러분의 PC통신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적극 권장하는 편	권장하는 편	간섭하지 않음	억제하는 편	적극 억제하는 편
①	②	③	④	⑤

- 여러분의 부모님께서서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실 줄 아십니까?

두분 모두 이용하신다	어머님만 이용하신다	아버님만 이용하신다	두분 모두 이용 못하신다
①	②	③	④

- 여러분의 인터넷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적극 권장하는 편	권장하는 편	간섭하지 않음	억제하는 편	적극 억제하는 편
①	②	③	④	⑤

- 여러분의 부모님께서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줄 아십니까?

두분 모두 이용하신다	어머님만 이용하신다	아버님만 이용하신다	두분 모두 이용 못하신다
①	②	③	④

(2) 정보격차 측정 통계처리 방식

1999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자료는 1,106건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recoding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산출된 변수들간의 측정 범위 차이에 따른 합산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산출된 값을 표준화하여 z값을 사용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지수의 세부항목과 중분류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통계처리시 적용하였는데, 가중치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설정하였다.

(3) 조사대상의 구성

조사 대상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인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삼았다. 조사표본은 <표 III-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광역행정단위별 중·고등학교 학생수 비례할당에 따라 성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단위)로 계층화하여 1,200명을 선정하였으며, 유효표본의 크기는 1,106명이었다.

<표 III-1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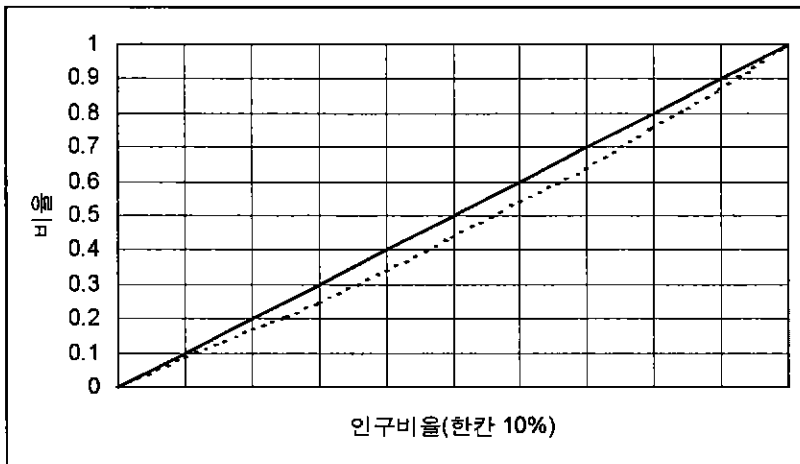
		사례수	(%)	비 고
전 체		1,106	(100.0)	
성 별	남 자	515	(46.6)	
	여 자	591	(53.4)	
학 교 급 별	중 학 교	605	(54.7)	
	고등학교	501	(45.3)	
지 역 규 모 별	대 도 시	418	(37.8)	서울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373	(33.7)	시·군지역
	읍·면	315	(28.5)	읍·면 지역

2)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불평등계수 분석

(1) 정보인식지수 불평등계수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인식지수 불평등계수를 측정한 결과, 그 격차 정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곡선의 굴곡이 매우 완만하며 불평등계수는 0.05로 조사되었다. 지니계수의 경우 0.3을 넘으면 불평등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인식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계층의 인식지수 불평등 계수는 우리나라 국민평균 인식지수 불평등 계수인 0.13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은 성별이나 학교급별, 또는 거주지역이나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가 없이 대부분이 정보화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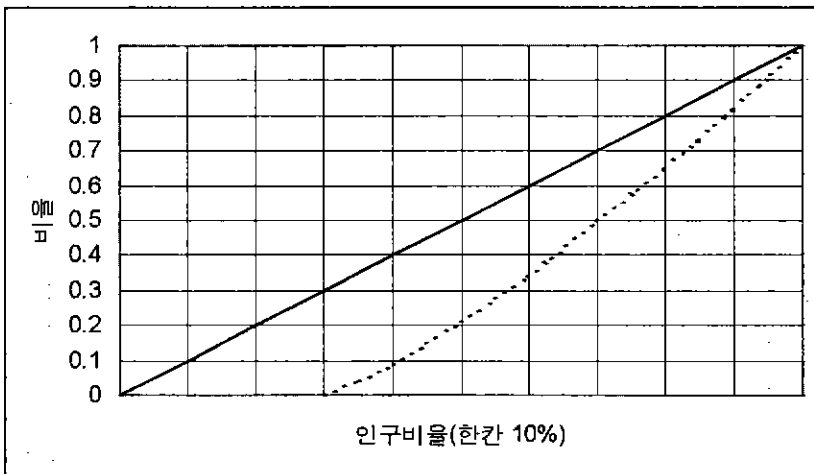


[그림 III-3]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인식지수 불평등 곡선

(2) 정보접근지수 불평등계수

정보기기와 가상공간의 접근지수를 분석한 결과, 인식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불평등 계수는 0.31로 나타나 불평등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국민평균 접근 불평등계수 0.63보다는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30%정도가 컴퓨터나 통신에 대한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의 불평등곡선 중 x축과 닿아 있는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그림 III-4]. 이러한 불평등곡선의 청소년의 3명 중 1명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전혀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0년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조사에서 약 30%정도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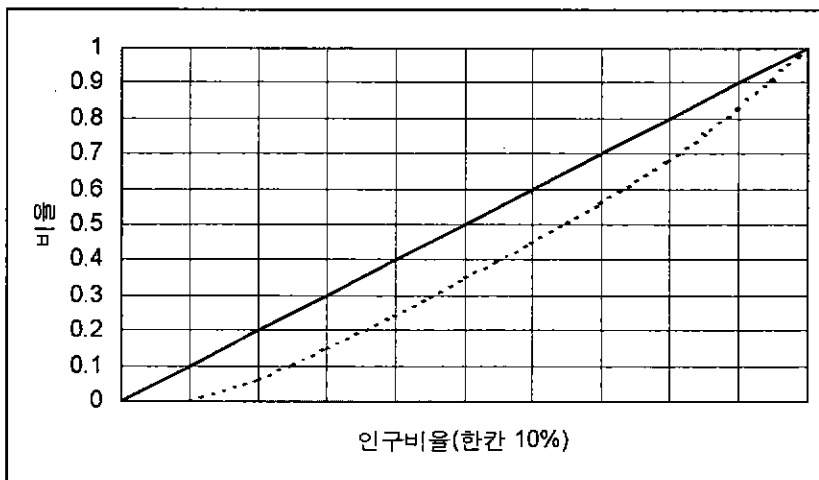


[그림 III-4]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접근지수 불평등 곡선

(3) 정보이용지수 불평등계수

정보이용지수 불평등계수는 접근지수보다 낮은 0.21로 조사되어 불평등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의 10%정도가 사용능력이나 환경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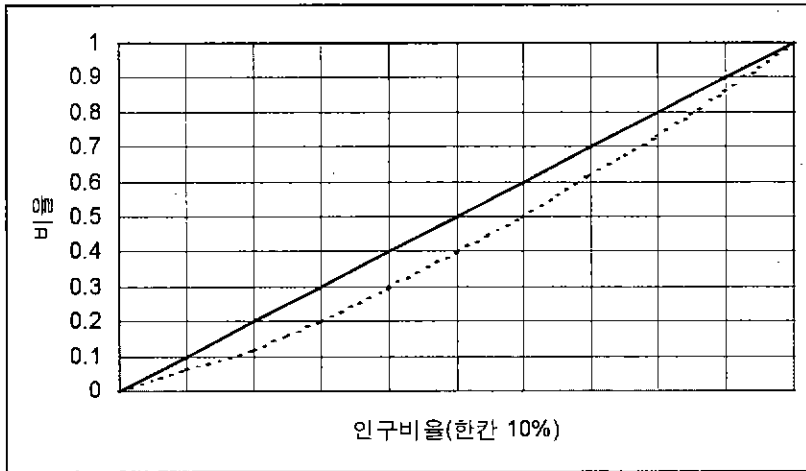
접근지수에 비해 이용지수의 불평등이 낮게 조사된 것은 이용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채택된 설문조사의 세부항목이 적절치 못한 결과로 추측되며, 향후 청소년의 정보이용지수와 관련된 보다 세분화되고 세련된 항목의 개발과 조사가 요구된다.



[그림 III-5]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이용지수 불평등 곡선

(4) 정보화 역량지수 불평등계수

청소년계층의 정보화역량지수의 불평등 정도는 0.11로 조사되어 불평등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민평균 불평등계수 0.31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그림 III-6]. 따라서 청소년의 대부분이 어느정도의 정보화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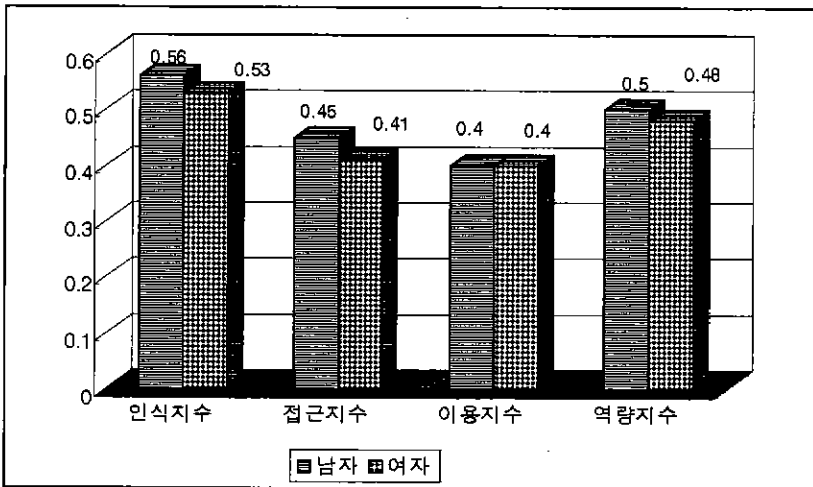
[그림 III-6]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화 역량지수 불평등 곡선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계층의 경우 이용지수만 불평등하고, 인식지수나 이용지수, 역량지수의 경우는 매우 낮은 불평등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향후에는 청소년계층에 맞는 새로운 정보화지표를 개발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청소년의 사회배경별 정보화지수 격차

(1) 청소년의 성별 정보격차

청소년의 성별 평균 정보화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남자 청소년이 약간 높게 조사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점에 인식지수의 평균은 각각 0.56과 0.53, 접근지수는 0.45와 0.41, 이용지수는 0.40으로 동일하였으며, 역량지수도 0.50과 0.48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III-7].



[그림 III-7] 청소년의 성별 정보화지수

남자 청소년의 정보화지수를 100으로 하여 각 지수별 불평등정도를 살펴볼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지수의 경우 남자 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청소년의 성별 정보격차는 일반국민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7>.

<표 III-17> 청소년의 성별 정보화지수 비교

		인식지수	접근지수	이용지수	역량지수
청소년	남 자	100.0	100.0	100.0	100.0
	여 자	94.6	91.1	100.0	96.0
	격 차*	5.4	8.9	0	4.0
국민평균	남 자	100.0	100.0	100.0	100.0
	여 자	86.4	78.0	55.8	81.2
	격 차	13.6	22.0	44.2	18.8

* : 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를 의미

청소년의 성별 정보화지수 기초통계자료와 성별 집단간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성(ANOVA)은 각각 <표 III-18>, <표 III-19>와 같다.

<표 III-18> 성별 정보화지수 기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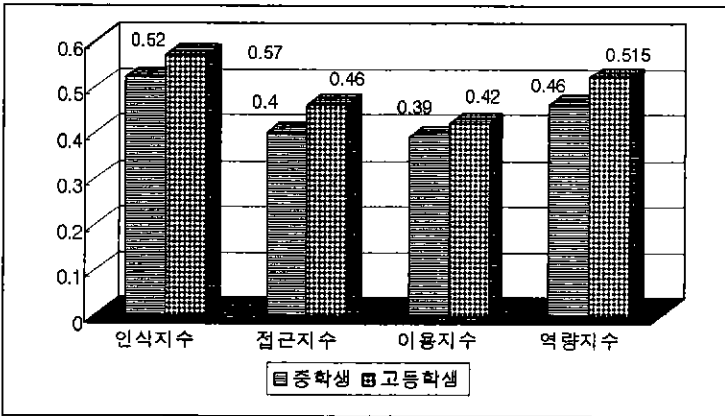
구분	성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of Mean	Minimum	Maximum
인식지수	남자	418	.5620	.1492	7.296E-03	.03	.96
	여자	505	.5255	.1336	5.945E-03	.04	.91
	Total	923	.5420	.1420	4.673E-03	.03	.96
접근지수	남자	515	.4480	.3761	1.657E-02	.00	1.00
	여자	588	.4065	.3522	1.453E-02	.00	1.00
	Total	1103	.4258	.3640	1.096E-02	.00	1.00
이용지수	남자	514	.3993	.2071	9.134E-03	.00	1.00
	여자	591	.4013	.2200	9.048E-03	.00	.95
	Total	1105	.4004	.2140	6.437E-03	.00	1.00
역량지수	남자	418	.5000	.1853	9.062E-03	.01	.91
	여자	505	.4749	.1734	7.715E-03	.04	.87
	Total	923	.4863	.1792	5.899E-03	.01	.91

<표 III-19> 성별 평균차이 통계적 유의성(ANOVA)

구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인식지수	Between Groups	.305	1	.305	15.371	.000
	Within Groups	18.275	921	1.984E-02		
	Total	18.580	922			
접근지수	Between Groups	.473	1	.473	3.577	.059
	Within Groups	145.526	1101	.132		
	Total	145.999	1102			
이용지수	Between Groups	1.152E-03	1	1.152E-03	.025	.874
	Within Groups	50.547	1103	4.583E-02		
	Total	50.548	1104			
역량지수	Between Groups	.145	1	.145	4.523	.034
	Within Groups	29.465	921	3.199E-02		
	Total	29.610	922			

(2) 청소년의 교급별 정보격차

청소년의 교급별 평균 정보화지수를 비교하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모든 지수에서 높게 조사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점에 인식지수는 0.57과 0.52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III-8].



[그림 III-8] 청소년의 교급별 정보화지수

고등학생의 정보화지수를 100으로 하여 각 지수별로 살펴볼 때, 정보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접근지수에서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표 III-20>.

<표 III-20> 교급별 정보화지수 비교

	인식지수	접근지수	이용지수	역량지수
중학생	91.2	87.0	92.9	88.5
고등학생	100.0	100.0	100.0	100.0
격 차*	8.8	13.0	7.1	11.5

* : 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를 의미

청소년의 교급별 정보화지수 기초통계자료와 집단간 평균차이의 통

제적 유의성(ANOVA)은 각각 <표 III-21>, <표 III-22>과 같다.

<표 III-21> 교급별 정보화지수 기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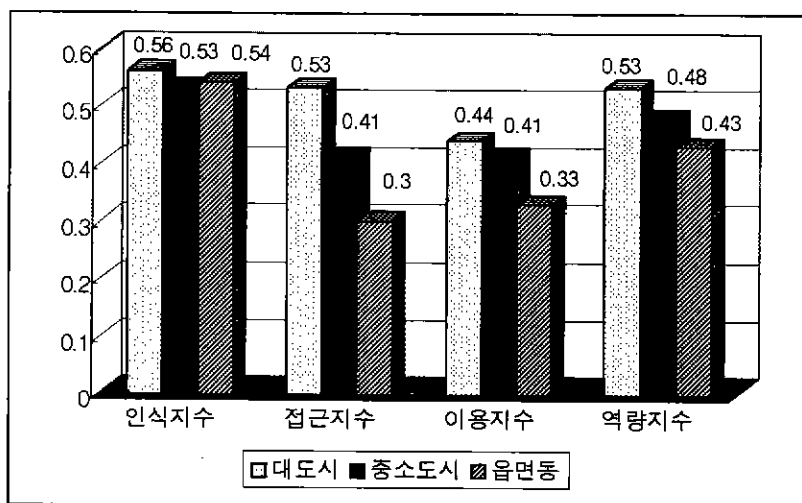
구분	학교급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of Mean	Minimum	Maximum
인식지수	중학교	499	.5215	.1475	6.604E-03	.03	.96
	고등학교	424	.5661	.1312	6.374E-03	.03	.91
	Total	923	.5420	.1420	4.673E-03	.03	.96
접근지수	중학교	605	.3948	.3640	1.480E-02	.00	1.00
	고등학교	498	.4636	.3608	1.617E-02	.00	1.00
	Total	1103	.4258	.3640	1.096E-02	.00	1.00
이용지수	중학교	604	.3883	.2134	8.683E-03	.00	.95
	고등학교	501	.4150	.2140	9.559E-03	.00	1.00
	Total	1105	.4004	.2140	6.437E-03	.00	1.00
역량지수	중학교	499	.4620	.1815	8.127E-03	.01	.91
	고등학교	424	.5149	.1723	8.367E-03	.11	.87
	Total	923	.4863	.1792	5.899E-03	.01	.91

<표 III-22> 교급별 평균차이 통계적 유의성(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인식지수	Between Groups	.455	1	.455	23.096	.000
	Within Groups	18.126	921	1.968E-02		
	Total	18.580	922			
접근지수	Between Groups	1.291	1	1.291	9.826	.002
	Within Groups	144.707	1101	.131		
	Total	145.999	1102			
이용지수	Between Groups	.196	1	.196	4.289	.039
	Within Groups	50.352	1103	4.565E-02		
	Total	50.548	1104			
역량지수	Between Groups	.641	1	.641	20.394	.000
	Within Groups	28.968	921	3.145E-02		
	Total	29.610	922			

(3) 청소년의 거주지역별 정보격차

청소년의 거주지역별 평균 정보화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큰 차이가 없으나 접근지수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인식지수나 역량지수는 거주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접근지수의 경우 대도시 거주 청소년은 평균 1.0만점에 0.53인 반면 중·소도시 거주청소년은 0.41, 읍·면·동 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0.30의 수준을 보였다[그림 III-9].



[그림 III-9] 청소년의 거주지역별 정보화지수

청소년의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정보불평등의 경우 일반국민 평균 격차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접근지수와 이용지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대도시 거주 청소년의 지수를 100으로 할 때 중·소도시 77.4, 읍·면·동 지역은 55.6으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3>.

청소년의 거주지역별 정보화지수 기초통계자료와 집단간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성(ANOVA)은 <표 III-24>, <표 III-25>와 같다.

<표 III-23> 청소년의 거주지역별 정보화지수 비교

		인식지수	접근지수	이용지수	역량지수
청소년	대도시	100.0	100.0	100.0	100.0
	중소도시	94.6	77.4	93.2	90.6
	읍면동	96.4	56.6	75.0	81.1
	격 차*	3.6	43.4	25.0	18.9
국민평균	대도시	100.0	100.0	100.0	100.0
	중소도시	94.7	94.3	93.4	96.0
	읍면동	84.7	75.6	84.0	89.0
	격 차*	15.3	24.4	16.0	11.0

* : 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를 의미

<표 III-24> 거주지역별 정보화지수 기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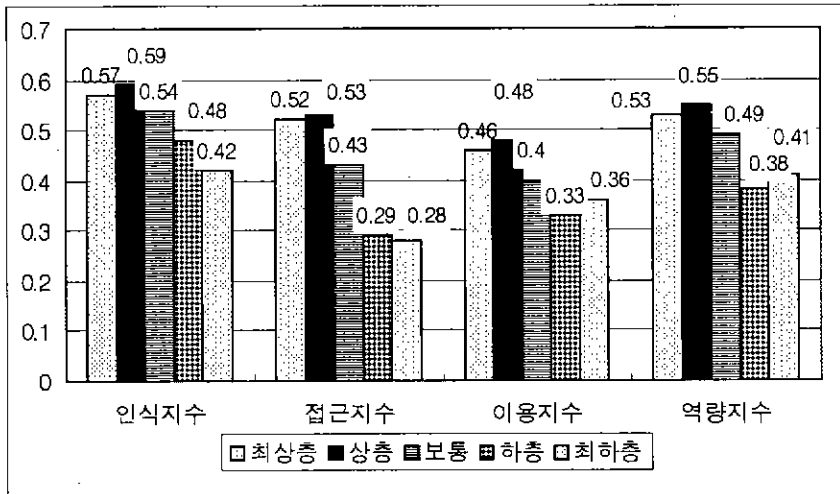
	지역규모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of Mean	Minimum	Maximum
인식지수	대도시	369	.5603	.1438	7.488E-03	.04	.92
	중소도시	323	.5325	.1362	7.579E-03	.13	.91
	읍,면	231	.5261	.1442	9.486E-03	.03	.96
	Total	923	.5420	.1420	4.673E-03	.03	.96
접근지수	대도시	418	.5310	.3559	1.741E-02	.00	1.00
	중소도시	370	.4142	.3550	1.845E-02	.00	1.00
	읍,면	315	.3000	.3434	1.935E-02	.00	1.00
	Total	1103	.4258	.3640	1.096E-02	.00	1.00
이용지수	대도시	418	.4391	.2127	1.040E-02	.00	1.00
	중소도시	373	.4139	.2089	1.082E-02	.00	.95
	읍,면	314	.3327	.2063	1.164E-02	.00	.85
	Total	1105	.4004	.2140	6.437E-03	.00	1.00
역량지수	대도시	369	.5321	.1769	9.207E-03	.15	.91
	중소도시	323	.4780	.1770	9.847E-03	.07	.86
	읍,면	231	.4246	.1660	1.092E-02	.01	.89
	Total	923	.4863	.1792	5.899E-03	.01	.91

<표 III-25> 거주지역별 평균차이 통계적 유의성(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인식지수	Between Groups	.211	2	.105	5.276	.005
	Within Groups	18.370	920	1.997E-02		
	Total	18.580	922			
접근지수	Between Groups	9.659	2	4.830	38.966	.000
	Within Groups	136.339	1100	.124		
	Total	145.999	1102			
이용지수	Between Groups	2.133	2	1.067	24.279	.000
	Within Groups	48.414	1102	4.393E-02		
	Total	50.548	1104			
역량지수	Between Groups	1.677	2	.838	27.612	.000
	Within Groups	27.933	920	3.036E-02		
	Total	29.610	922			

(4)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별 정보격차

청소년의 가정 소득수준별 정보화지수는 거주지역별 정보화지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인식지수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접근지수나 이용지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청소년 자신의 가정 소득수준을 최상층이라고 판단한 경우보다 상층이라고 판단한 경우의 정보화지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별 국민평균 정보화지수와 유사한 것이다[그림 III-10]. 이 조사에서는 가정 소득수준에 대한 판단을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림 III-10] 청소년의 가정 경제수준별 정보화지수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층인 청소년의 정보화지수를 100으로 하여 각 지수별로 살펴볼 때, 인식지수와 접근지수, 이용지수, 역량지수 등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접근지수와 역량지수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표 III-26>.

<표 III-26> 청소년의 가정 경제수준별 정보화지수 비교

	인식지수	접근지수	이용지수	역량지수
최상층	96.6	98.1	95	96.4
상층	100.0	100.0	100.0	100.0
보통	91.5	81.1	83.3	89.1
하층	81.4	54.7	68.8	74.5
최하층	71.2	52.8	75.0	69.1
격 차*	28.8	47.2	25.0	30.9

* : 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를 의미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별 정보화지수 기초통계자료와 집단간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성(ANOVA)은 <표 III-27>, <표 III-28>과 같다.

<표 III-27> 가정 경제수준별 정보화지수 기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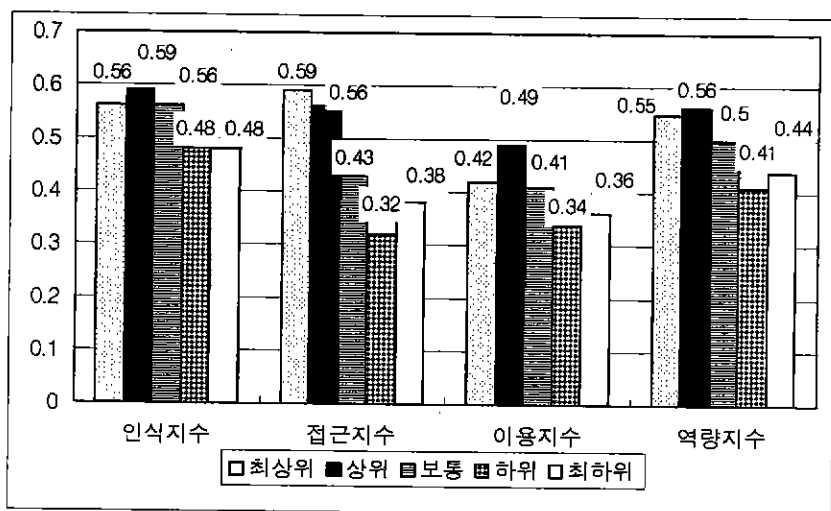
지수	경제수준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of Mean	Minimum	Maximum
인식지수	최상층	17	.5687	.1622	3.934E-02	.32	.88
	상층	92	.5855	.1361	1.418E-02	.27	.84
	보통수준	726	.5439	.1376	5.109E-03	.03	.96
	하층	70	.4803	.1358	1.623E-02	.04	.82
	최하층	15	.4205	.2318	5.984E-02	.03	.70
	Total	920	.5416	.1420	4.683E-03	.03	.96
접근지수	최상층	20	.5175	.3499	7.824E-02	.00	1.00
	상층	104	.5529	.3482	3.415E-02	.00	1.00
	보통수준	860	.4267	.3636	1.240E-02	.00	1.00
	하층	86	.2919	.3468	3.740E-02	.00	1.00
	최하층	20	.2775	.3593	8.033E-02	.00	1.00
	Total	1090	.4270	.3647	1.105E-02	.00	1.00
이용지수	최상층	20	.4572	.1868	4.177E-02	.00	.75
	상층	103	.4764	.1996	1.966E-02	.00	.88
	보통수준	860	.3991	.2112	7.201E-03	.00	1.00
	하층	86	.3328	.2118	2.284E-02	.00	.71
	최하층	20	.3640	.2589	5.790E-02	.00	.73
	Total	1089	.4016	.2126	6.443E-03	.00	1.00
역량지수	최상층	17	.5316	.1651	4.004E-02	.25	.85
	상층	92	.5526	.1712	1.785E-02	.11	.89
	보통수준	726	.4879	.1759	6.527E-03	.01	.91
	하층	70	.3836	.1782	2.130E-02	.04	.79
	최하층	15	.4047	.1943	5.016E-02	.16	.75
	Total	920	.4859	.1792	5.910E-03	.01	.91

<표 III-28> 가정 경제수준별 평균차이 통계적 유의성(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인식지수	Between Groups	.677	4	.169	8.665	.000
	Within Groups	17.866	915	1.953E-02		
	Total	18.542	919			
접근지수	Between Groups	3.830	4	.957	7.365	.000
	Within Groups	141.032	1085	.130		
	Total	144.862	1089			
이용지수	Between Groups	1.078	4	.270	6.073	.000
	Within Groups	48.112	1084	4.438E-02		
	Total	49.191	1088			
역량지수	Between Groups	1.280	4	.320	10.365	.000
	Within Groups	28.247	915	3.087E-02		
	Total	29.527	919			

(5) 청소년의 학업능력별 정보격차

청소년의 학업능력별 정보화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심각한 격차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1].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한 자신의 학업능력에 따른 정보화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인식지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접근지수나 이용지수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정보격차와 유사하게 자신 학업능력이 최상위라고 판단한 경우보다 상위라고 판단한 경우의 정보화지수가 대부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한 평가도 가정 소득수준 평가와 같이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림 III-11] 청소년의 학업능력별 정보화지수

학교성적이 상위인 청소년의 정보화지수를 100으로 하여 각 지수별로 살펴볼 때, 정보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접근지수의 경우 하위의 청소년과 최상위 학생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9>.

<표 III-29> 청소년의 학업능력별 정보화지수 비교

	인식지수	접근지수	이용지수	역량지수
최상위	94.1	105.4	87.7	98.2
상위	100.0	100.0	100.0	100.0
보통	94.1	76.8	83.7	89.3
하위	81.4	57.1	69.4	73.2
최하위	81.4	67.9	73.5	78.6
격 차*	18.6	48.3	26.5	26.8

* : 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를 의미

청소년의 학업 능력별 정보화지수 기초통계자료와 집단간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성(ANOVA)은 <표 III-30>, <표 III-31>과 같다.

<표 III-30> 학업능력별 정보화지수 기초통계

	학교성적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of Mean	Minimum	Maximum
인식지수	최상위층	32	.5591	.1651	2.918E-02	.14	.88
	상위층	148	.5908	.1362	1.119E-02	.24	.92
	보통	493	.5552	.1299	5.849E-03	.15	.96
	하위층	212	.4836	.1370	9.406E-03	.03	.88
	최하위층	32	.4784	.2100	3.712E-02	.03	.90
	Total	917	.5419	.1421	4.692E-03	.03	.96
접근지수	최상위층	37	.5865	.3959	6.509E-02	.00	1.00
	상위층	163	.5592	.3381	2.648E-02	.00	1.00
	보통	579	.4320	.3623	1.506E-02	.00	1.00
	하위층	266	.3231	.3472	2.129E-02	.00	1.00
	최하위층	40	.3838	.3825	6.048E-02	.00	1.00
	Total	1085	.4279	.3650	1.108E-02	.00	1.00
이용지수	최상위층	37	.4216	.1783	2.932E-02	.00	.75
	상위층	163	.4871	.1840	1.441E-02	.00	.88
	보통	579	.4073	.2166	9.000E-03	.00	.90
	하위층	265	.3439	.2088	1.283E-02	.00	1.00
	최하위층	40	.3629	.1944	3.073E-02	.00	.75
	Total	1084	.4026	.2125	6.453E-03	.00	1.00
역량지수	최상위층	32	.5525	.1879	3.322E-02	.11	.85
	상위층	148	.5612	.1610	1.323E-02	.15	.91
	보통	493	.4958	.1724	7.764E-03	.09	.89
	하위층	212	.4087	.1733	1.190E-02	.01	.87
	최하위층	32	.4440	.1963	3.470E-02	.04	.85
	Total	917	.4864	.1792	5.917E-03	.01	.91

<표 III-31> 학업능력별 평균차이 통계적 유의성(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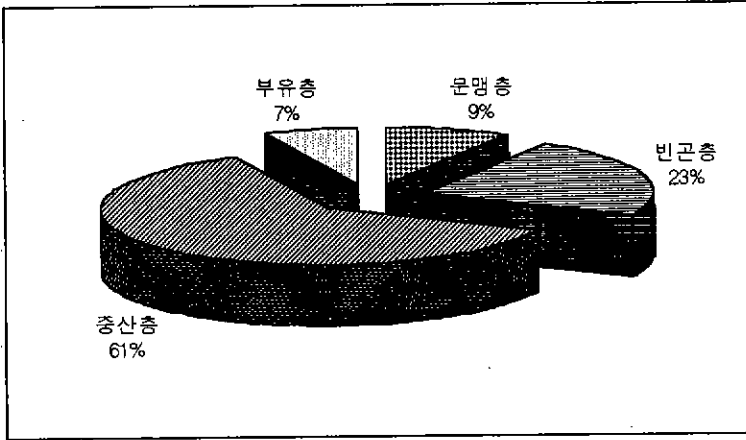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인식지수	Between Groups	1.301	4	.325	17.259	.000
	Within Groups	17.193	912	1.885E-02		
	Total	18.494	916			
접근지수	Between Groups	6.749	4	1.687	13.234	.000
	Within Groups	137.686	1080	.127		
	Total	144.434	1084			
이용지수	Between Groups	2.167	4	.542	12.511	.000
	Within Groups	46.725	1079	4.330E-02		
	Total	48.892	1083			
역량지수	Between Groups	2.350	4	.588	19.806	.000
	Within Groups	27.054	912	2.966E-02		
	Total	29.404	916			

4) 청소년의 정보화 계층별 분석

(1) 청소년의 정보화 계층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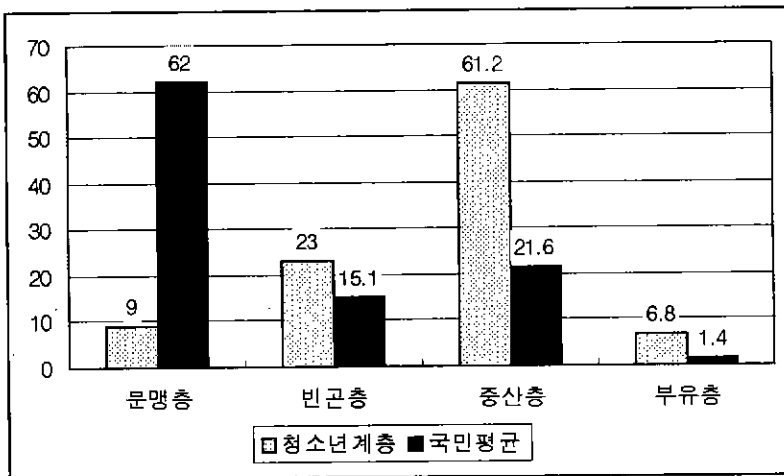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화 계층별 구분은 조사대상자의 사용지수를 기준으로 삼아, 0.7보다 크면 정보부유층으로, 0.3에서 0.7사이면 정보중산층으로, 0보다 크고 0.3이하이면 정보빈곤층으로, 사용지수가 0이면 정보문맹층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분석내용은 각 계층별로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 가정 경제수준별, 학업능력별로 구성과 정보화지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계층내부의 정보화 수준별 구성을 보면, 정보부유층이 6.8%(75명)를 차지하였고, 중산층이 61.2%(676명), 빈곤층 23.0%(254명), 문맹층이 9.0%(99명)을 차지하는 것을 조사되었다[그림 III-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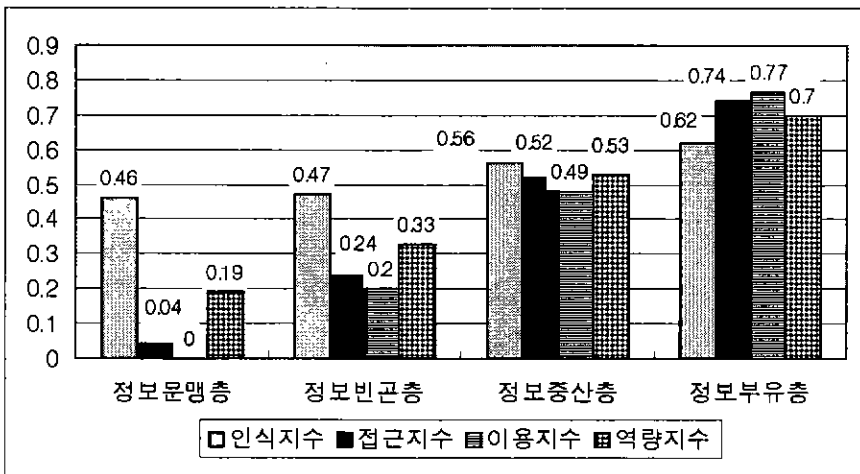
[그림 III-12] 청소년의 정보화 계층별 구성

청소년계층내부의 정보화 수준별 구성을 국민평균 구성비율과 비교하여 보면, 문맹층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 중산층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평균 정보격차보다는 청소년계층의 격차가 덜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I-13].



[그림 III-13] 정보화 계층별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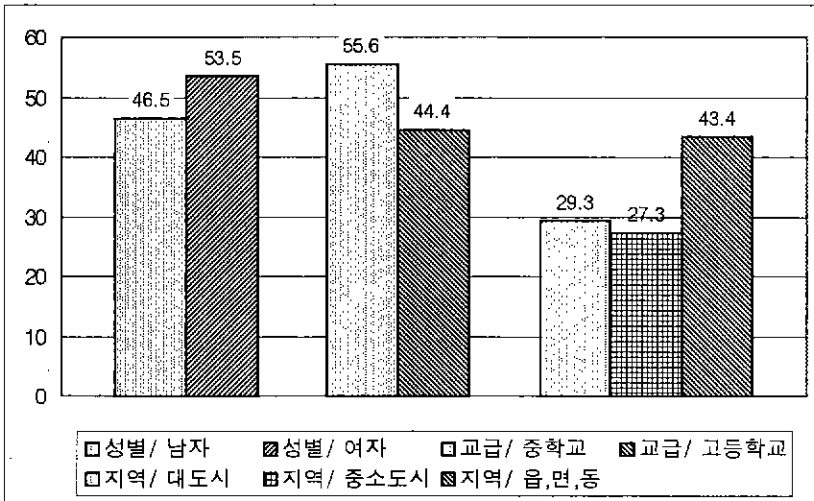
청소년계층내부의 정보화 수준에 따른 계층별 특성을 살펴보면, 인식지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역량지수와 접근지수, 사용지수의 순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III-14].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정보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보기기의 접근과 이용분야에서 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14] 청소년 정보화 계층별 정보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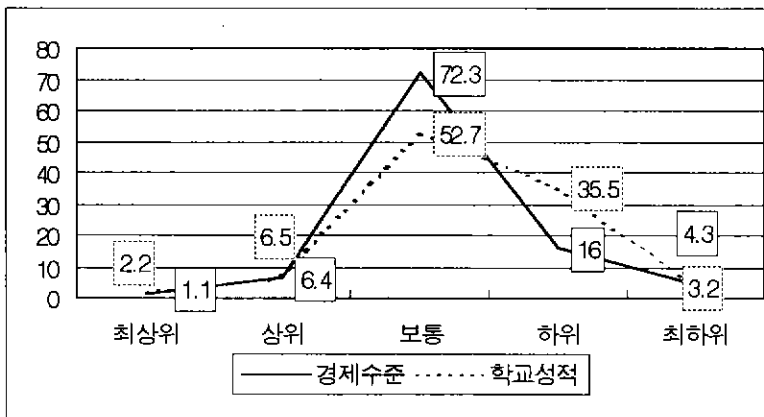
(2) 정보 문맹층 청소년의 특성

정보문맹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사용지수가 0인 집단으로, 조사대상자의 9.0%에 해당된다. 정보문맹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 볼 때 여자 청소년이,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약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 면, 동 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비중이 높았다[그림 III-15]. 청소년의 정보문맹층을 구성하는 사회계층적 배경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15] 청소년 정보문맹층의 구성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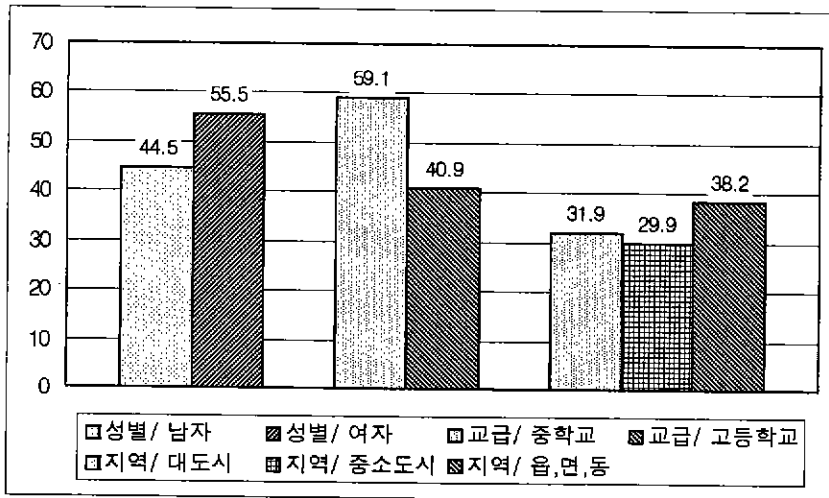
이 밖에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볼 때,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 (72.3%)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못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중이 16.0%로 높았다. 학교성적별 구성에서도 경제수준과 유사하게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문맹층의 52.7%를 차지하였고,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5.5%에 해당되었다[그림 III-16].



[그림 III-16] 청소년 정보문맹층의 구성 2

(3) 정보 빈곤층 청소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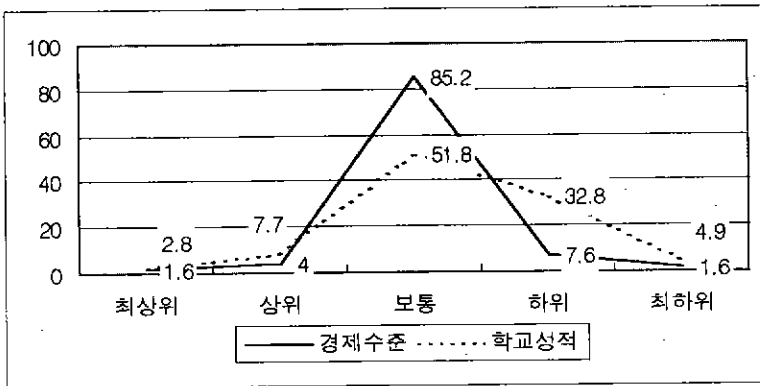
정보빈곤층 청소년은 사용지수가 0보다 크고 0.3이하인 집단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23.0%(254명)가 해당되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정보 문맹층 청소년과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성별로 볼 때는 남자 청소년(44.5%)보다 여자 청소년(55.5%)이, 교급별로는 중학생(59.1%)이 고등학생(40.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 면, 동단위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문맹층(43.4%)보다 약간 낮게 조사되었지만, 중소도시와 대도시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문맹층보다 더 높게 조사되었다[그림 III-17].



[그림 III-17] 청소년 정보빈곤층의 구성 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도 거주지역 규모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지만,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5.2%를 차지한 반면, 못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중이 7.6%로 낮았다. 반면에 학교성적별 구성에서는 정보문맹층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학교성적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문맹층의 51.8%를 차지하였고,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2.8%에

해당되었다[그림 III-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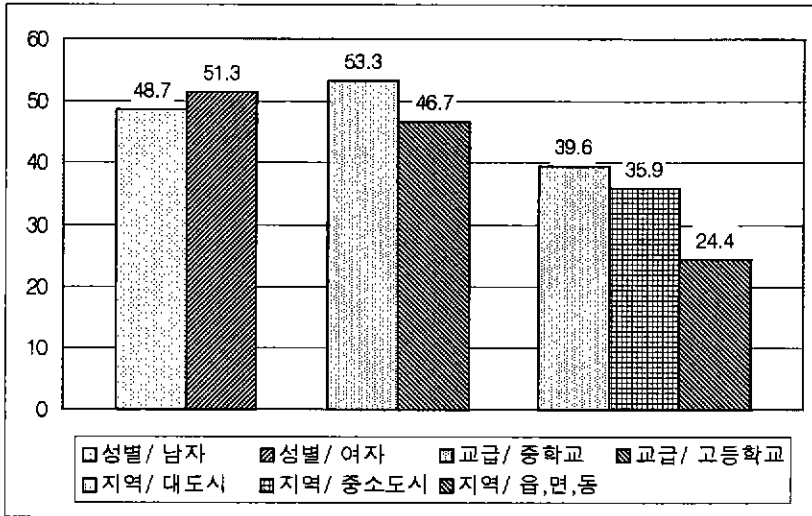


[그림 III-18] 청소년 정보빈곤층의 구성 2

(4) 정보 중산층 청소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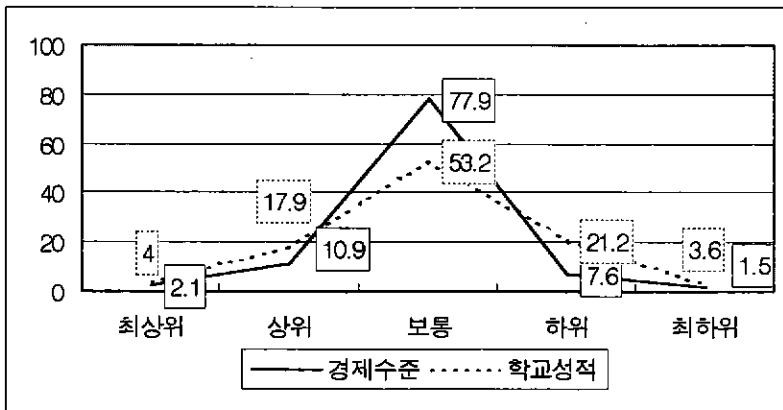
정보중산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사용지수가 0.3보다 크고 0.7이하인 경우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61.1%(676명)가 해당된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문맹층이나 빈곤층과 비교할 때 성별, 교급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거주지역규모별로는 구성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중산층의 경우 거주지역규모별로 대도시(39.6%), 중소도시(35.9%), 읍·면·동(24.4%)의 순으로 나타나 문맹층과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그림 III-19]. 따라서 청소년의 성별이나 학교급별 차이보다는 거주지역규모가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화계층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I-19].



[그림 III-19] 청소년 정보중산층의 구성 1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별 구성비도 거주지역 규모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는데,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7.9%로 나타났지만,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9%로 조사되어 그 뒤를 차지하였다[그림 III-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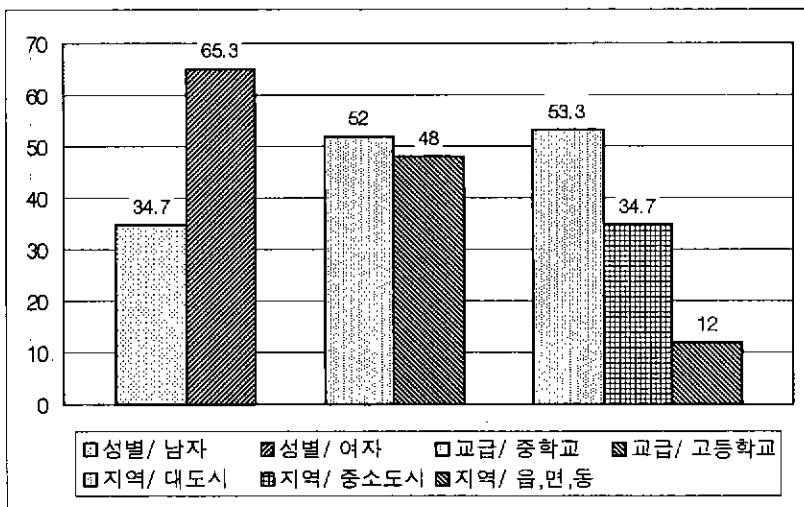
[그림 III-20] 청소년 정보중산층의 구성 2

정보중산층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아주 못산다고 응답

한 경우로 1.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학교성적에 있어서는 문맹층이나 빈곤층의 구성상 특징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성적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문맹층의 53.2%를 차지하였고,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1.2%에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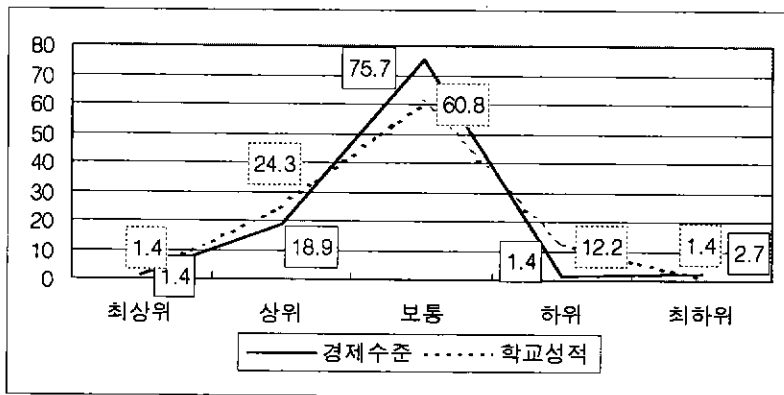
(5) 정보 부유층 청소년의 특징

정보부유층 청소년은 사용지수가 0.7이상인 집단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6.8%(75명)가 해당되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문맹층이나 빈곤층, 중산층과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인다. 성별로 볼 때는 여자 청소년(65.3%)이 남학생(34.7%)보다 더 높게 조사되었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52%)과 고등학생(48%)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전체 부유층의 절반을 넘었고(53.3%),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34.7%, 읍·면·동 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12%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그림 III-21].



[그림 III-21] 청소년 정보부유층의 구성 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5.7%로 나타났다지만,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8.9%로 조사되어 그 뒤를 차지하였다. 학교성적에 있어서는 문맹층이나 빈곤층의 구성상 특징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성적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부유층의 60.8%를 차지하였고,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4.3%에 해당되었다[그림 III-22].



[그림 III-22] 청소년 정보부유층의 구성 2

지금까지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를 분석한 결과, 일반국민의 불평등현상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체 개인정보화지표에 따른 정보격차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정보불평등에 비해 그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불평등을 구성하는 인식지수나 역량지수에는 매우 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정보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만, 이용지수에서는 정보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

소년의 30%정도가 전혀 정보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배경별 특징에 따른 정보격차를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 전체에서 발견되는 성별 정보격차가 청소년계층 내부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 내부의 정보격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는 거주지역의 규모에 있으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인식이나 접근, 이용, 역량지수 모두가 높게 조사되었고, 가정의 경제수준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정보화 수준에 따른 계층구성의 경우, 전체 정보불평등지수가 낮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각 계층별로 사회배경에 따른 구성비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거주지역규모에 따른 구성비율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정보부유층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제 언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확실히 보장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의 가속도는 환영할만 일이다. 그러나 정보화는 단순히 긍정적 결과만을 지닌 채 돌고 있는 팽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요컨대, 정보화는 우리 앞에서 돌고 있는 거대한 동전과 같고, 어떤 면이 우리를 향해 높아가는 정보화라는 동전이 지닌 긍정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어떻게 강화 또는 감소시키는가에 의해 우리사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보격차가 중요한 이유도 우리 앞에서 돌고 있는 정보화라는 동전의 부정적 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보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보격차가 지닌 사회적 함의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속속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사회의 정보화 속도와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처라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는 사회구성원의 평균적인 정보화수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또는 정보화에 친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격

차에 대한 논의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은 하나의 우려를 자아낸다. 청소년은 현재 존재하는 중요한 사회구성원인 동시에 미래 정보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세대이다. 요컨대, 청소년은 정보화에 의한 사회구조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야만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보격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의 정보격차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하고, 실험적 차원에서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를 검토하여 보았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의 범주는 크게 다른 사회계층과 청소년간의 정보격차와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과 다른 계층간에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 이용을 위한 객관적 환경 등에서는 청소년계층이 다른 사회계층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시간 등은 더 짧은다는 점이다. 더구나 정보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컨텐츠나 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실정인데, 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는 그 수나 질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정보화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정보공간이 공공적 성격을 지닌 정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축되어 있는 공공적 성격의 정보와 서비스도 대부분 정보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요컨대 청소년과 다른 사회계층간의 정보격차 현상은,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정보공간에 대한 접근의 기회나 능력은 청소년이 더욱 높지만, 막상 정보공간을 이용하는 시간이나 여건은 다른 사회계층에 비해 청소년계층이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보격차에서 주된 논의거리가 되는 성별이나 연령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 청소년계층에서도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공간 진입에 필수적인 정보기기의 접근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도 청소년의 정보격차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내부의 정보격차가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문제를 일단 뒤로 넘기고 보자는 식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의 원인을 제공하는 변수는 청소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강제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공간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층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와 정보공간에서 보이는 취약성의 원인은 결국 사회구조에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정보격차는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 해결과 대안의 모색 또한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2. 제언

이 연구는 청소년관련 정보격차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삼아야하며, 그 실태와 경향을 시론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데, 현재적 위치과 미래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격차와 관련된 기초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정보격차의 실태와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가 지닌 미래지향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현재의 성인집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보화와 청소년문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일탈행위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던 간에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 정보격차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듯이, 청소년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집단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청소년 계층 중 정보소외집단을 설정하여 각 집단별로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소년 정보격차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는 미래 우리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격차 해소정책에 있어서 청소년을 중심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인식과 접근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부의 정보격차 또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중심 대상을 청소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파급효과를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정보공간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공영역 확보를 위해 청소년 전용 공공정보와 공공네트워크의 확산이 필수조건인데, 이는 현실공간의 청소년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실공간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단체나 수련시설 등 다양한 청소년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기반으로 하여, 이들 기관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공공분야에 비해 청소년분야의 정보화수준은 매우 낮은데, 이는 청소년의 정보화 수준을 놓고 볼 때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보화에 대한 사회분야 참여과정에서 청소년의 정보격차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보화와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단체는 주로 정보공간에 산재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진입한 청소년들을 '어디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가'이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어떻게 어떤 곳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 자명한 시점에서 가상공간에 몰려드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먼저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현재에도 부족한 가상공간 내에 청소년을 위한 정보와 환경 구축에 사회부문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정보화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계층만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과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소년이라는 계층에게 있어 정보격차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여 이 사회의 주역으로 생활하는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격차 문제가 지닌 사회적 함의를 인식하고, 그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적이고 세련된 정책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용학(1998), “정보사회의 성격 :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 정보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나남.
- 박형준(1997), 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 서울: 박영률출판사.
- 백의선 · 배문식 · 심재용(1996), “정보화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연구, 8권 2호.
- 서이종(1998), “고도정보화사회와 정보화지표”, 한국전산원, 정보화저널, 5권 2호.
- _____(2000),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개념과 대책의 필요성”, 한국전산원, 정보격차 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 손연기 외(1998a), PC통신이용실태 및 이용자 만족에 관한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_____(1999), 정보문화 확산 및 내실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신일철 · 정부련(1997), 정보화 정책지표개발 방법론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오광석 외(2000),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 실태조사, 서울: 한국전산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유네스코포럼, 1997년 가을호,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지열 외(1999),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_____(200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윤영민(2000),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윤준수(1998),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대전환, 커뮤니케이션북스.

전석호(1998), 한국사회와 정보화, 서울: 나남.

정국환 외(1996), 정보화지수를 위한 가중치 연구, 서울: 한국전산원.

정보사회학회 편(1999),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정인억 외(1997), 세계 주요국의 정보화 정책 비교 분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정문(2000), “외국 및 국제기구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한국전산원, 정보격차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최두진 외(1996),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최정호 외(1996),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 소화.

최흥석 외(1999), 정보불평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정보통신부.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편(1998),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세계사.

한국전산원(1999a), “미국의 정보격차 현황과 해결방안”, 정보화동향, 6권 13호.

_____ (1999b), “UNDP의 인간개발에 관한 보고서”, 정보화동향, 6권 13호,

한국정보문화센터(1996), 정보문화지수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황상민(2000), “온라인문화를 바라보는 청소년과 부모의 시각차”, 학부모 정보감시단·경향닷컴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온라인문화 바로 이해하기.

황진구(1999), 청소년 인터넷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_____ (2000), “온라인 상의 청소년문화 현주소”, 학부모정보감시단·경향닷컴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온라인문화 바로 이해하기.

_____ (2000), “디지털시대와 청소년의 정보화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 제9권 1호.

황진구 · 임성택 · 김성희(1999), 청소년 정보화 실태와 새로운 정책의 방향,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황진구 · 이현수 · 김성희(2000), 청소년기관 정보화실태와 DB·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Anderson, Robert et. al., *Universal Access to E-Mail : Feasibility and Societal Implication*, Santamonica: LAND, <http://www.rand.org/publication/MR>

Bazar, B. & Gregg Boalch(1997), "A preliminary model of internet diffusion within developing countries".
(<http://ausweb.scu.edu.au/proceedings/boalch/paper.html>.)

Blau A., Patty Burness(1997), "Turning 'NetDay' into Next Day, Education Week on the Web".
(<http://www.edweek.org/ew/vol-16/20blau.h16>.)

Bolt, David & Crawford, Ray(2000), *Digital Divide: Computers and Our Children's Future*, New York: TV Books.

Howard Sue ed.(1998), *Wired Up : Young People and the Electronic Media - Media, Education, and Culture -*. Univ College of London Pr.

Information Society Project Office(1998), "Basic Facts - European Overview". (<http://www.ispo.cec.be.esis/EUbasic3.html>.)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1997). "Internet Leapfrog: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Global Economic Competition".
(<http://www.idcresearch.com/F/Ei/gens15.htm>.)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Trade Association(2000), *State of the Internet 2000*. (<http://www.itta.com/internet2000.htm>).

Loader, Brain D.(1998), *Cyberspace divide : equality, agency and poli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 New York: Routledge.

Merritt, Smith & Leo Marx eds.(1994), *Does Technology Drive History: The Dilemma of Technological Determinism*,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 O'Malley, Chris et. al.,(1999), "The Digital Divided", *Time* 22.
- Raymond Williams(1990), "The Technology and the Society," in Raymond Williams (ed.), *Television: Technology & Cultural Form*, New York: Schocken Book.
- Richard Collins & Cristina Murrone(1996), *New Media, New Policies : Media and Communications Strategy for the Future*. Polity Pr.
- Robins, K. and Frank Webster(1988), "Cybernetic Capitalism: Information. Technology, Everyday Life", In V. Mosco and Wasco(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Schiller, H.(1990), *Information and The Crisis Economy*: 강현두 역. 현대자본주의와 정보지배논리. 서울: 나남
- Schiller, H.(1996), *Information Inequality: The Deeping Social Crisis in America*. New York: Routledge.
- Tapscott, Don(1998), *Growing up Digital : The Rise of Net Generation* : 허운나 · 유영만(1999).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서울 : 물푸레.
- U.S. 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1999), *Falling Through the Net : Defining the Digital Divided*, Washington D.C.
- U.S. NTIA(1995), *Falling Through the Net : A Survey on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 Washington D.C.
- U.S. NTIA(1998), *Falling Through the Net II: New Data on the Digital Divided*, Washington D.C.
- U.S. NTIA(1999), *Falling Through the Net : Defining the Digital Divide*, Washington D.C.
- U.S. NTIA(2000), *Falling Through the Net : Toward Digital Inclusion*, Washington D.C.
- William Wresch(1996), *Disconnected: Haves and Have Nots in the Information Age*,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